제38호 【루계

주체 1 1 1 (2022)년 9월

음력 8월 22일

로요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 떠 세 우 자 !

以小告 名列의 名기臺 名别别过烟

일흔네번째 년륜을 새긴 공화국의 하늘가에 람홍색 국기가 세차게 펄럭이고있다.

언제 보아도 위대한 내 조 국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 부심으로 가슴부풀고 사랑하 는 이 조선을 온 누리에 빛 내여갈 드높은 맹세와 각오 리의 공화국기이다.

눈길 들어 우리의 운명과 찬란한 미래가 실려있는 공 화국기를 우러르느라니 참으 로 비상한 의미를 안고 숭엄 하게 어려온다.

성스러운 그 기폭과 그 승리와 영광, 강성과 존엄 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 우시고 세기를 이어 우리의 국기를 높이 휘날려가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할수 없다.

나에게는 사연깊은 공화국 기발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스물두해전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판문 점분리선을 넘어 꿈결에도 그 리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 길 때 휘날렸던 공화국기발 이다.

지옥에서 락원으로 극적인 운명전환을 하던 그 잊을수 없는 날에 나는 손에 든 작 은 람홍색국기에 두볼을 비 비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나의 어제와 오늘, 우리 가정의 삶과 미래와 뗼수 없이 런결되여있는 공화국기 발을 바라볼 때면 우리의 국기와 함께 흘러온 만단 사연이 추억깊이 돌이켜지 군 한다.

경영하는 제강소에서 하루 던 어버이수령님. 16~18시간씩 마소처럼 혹사

원한의 흔적이였다. 늘 허리를 펴지 못하였다. 일 기운차게 휘날리는 오각별 력같은 소식에 접하고 하늘 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 고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안 곱자식을 먹여살리느라 밤새 찬연한 람홍색공화국기를 바 이 무너지는듯한 비통함에 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 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 한 충격에 휩싸이게 한 세계 워 삯바느질, 삯빨래를 하는 라보는 나의 머리속에 인디아 쓰러지고말았다. 어머니에게서 학비 같은것은 의 이름난 시인 타고르가 지 기대할수가 없었다.

나의 가슴속에 쌓이고쌓였 던 그 모든 설음은 전설적영웅 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아주신 그날부터 봄날의

눈석이마냥 녹아내리였다. 집안에 생기가 돌고 웃음 꽃이 피여났다. 돈이 없어 학 교조차 변변히 못다니던 나 도 형님, 누나들과 함께 줄 줄이 글소리 랑랑한 교정에 펄럭이는 공화국기는 타고 내준 남조선의 한 신문에 을 총대로 굳건히 지키고 더 들어섰다.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 비치고 세계를 밝히며 떠오 한분의 위대한 영웅을 탄생 장군님께서만이 걸으실수 있 이 진행되고있으며 행복의 《화성포-17》형의 장쾌한 억세게 눌러딛고 하루가 다 나는 이 글을 내가 즐겨 의원선거를 위한 북남조선총 르는 새 조선의 장엄한 모 시켰다. 김정일, 그이는 는 희생적인 헌신의 장정이 웃음 꽃퍼나는 가정과 흥겨 모습, 그것은 어떤 세력이든 르게 달라지고 높아지는 새 부르는 노래 《우리의 국기》 선거가 진행될 때 중학교에 습이였다. 다니던 나는 밤낮이 따로없 이 검덕과 허천 등 여러 지 올가미를 벗어던지고 온 세 욕 타임스》의 기사가 전재되 않아 공화국기가 내리워질것 있다. 국기를 새긴 각이한 소멸될것이라는 엄숙한 선고 하군 한다. 방을 오가며 신바람이 나서 상을 향해 웨치는 자주의 만 여있었다. 선전활동을 벌리였다.

우에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기상이였다. 처음으로 보았다.

양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힘 중하기에 나는 조국해방전쟁 차게 퍼덕이던 공화국기발! 시기 남먼저 인민군대에 탄

찡하니 저려오고 눈굽은 쩌 동강도 넘었다.

릿이 젖어들었다.

리의 국기가 있다. 이렇게 생 각하니 마음이 든든하고 밀 러드는 행복감에 가슴이 뻐 근하였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고 나 가 있다. 그가운데는 국화나 국수, 국조 또는 해와 달, 로 더운 피가 끓게 하는 우 별 혹은 자기 민족이 숭상 족이 자랑하는 특산품을 새 여러가지 색갈로 자기 나라 의 지리적특성을 반영한 국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의 세찬 퍼덕임에서 내 조국을 람홍색공화국기가 제일로 아

> 얼마나 깊은 뜻이 새겨져 있고 형태와 색갈 또한 얼마 나 아름답고 기운찬 우리의 국기인가.

> 후날 들은 이야기이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우 리 나라 국기는 조선의 넋, 주체의 사상과 정신이 맥박 치는 새롭고 조선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국기제정과 관 련하여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 다고 한다.

른색을 바탕으로 만들도록 하시고 붉은색은 항일선렬들 과 조선의 애국자들이 흘린 피와 공화국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 력을 상징하며 휘색은 우리 나라가 한강토에서 하나의 혈통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결백하게 살아온 단일민족국 가라는것을 상징하고 푸른 색은 민주주의 새 사회건설 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 의 씩씩한 모습과 세계의 평 화와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 해방전 나의 어린시절은 성 는 조선인민의 정신을 보여준

람홍색국기의 붉은 오각별 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족의 대국상, 런이어 들이 안겨주신 우리 수령님, 그 도미싸일 《화성포—17》형이 천지로 몰라보게 변모되여가 이 아니다. 당하였다. 어린 내가 볼 때 도 언제나 승리하고 전진하 늘 마음속에 그리며 신념의 닥친 자연재해와 엄혹한 식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굳건 만리대공으로 솟구쳐오르던 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또 얼 마다 몸서리치군 하던 아버 는 우리 인민의 용감성과 영 기둥을 억척으로 세워온 우 량난… 지몸에 난 끔찍한 상처자리 웅성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도 리 비전향장기수들이였다. 는 그때의 모진 고생이 남긴 록 하신 수령님에 의하여 새 겨진것이였다.

부모님들은 자식들때문에 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밖에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 었다는 시구절이 떠올랐다.

>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끊임없이 이어가신 강행군 조선

그 등불 다시한번 켜지는 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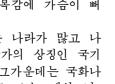
되리라

1948년 8월 조선민주주의 의 위인을 모시여 동방을 영상과 함께 《조선은 또 오와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일때마다 성대한 국기계양식 폭음을 울리며 솟구쳐오른 그 힘찬 퍼덕임은 예속의 라고 칭송한 미국신문 《뉴

세소리였고 수령님의 령도따 예지로 빛나는 안광, 열정 러버리며 조국에서는 람홍색 이 입고 다니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라 부강조국건설에 한사람같 과 자애에 넘치는 미소… 공화국기를 새긴 인공지구위 창진되던 날 나는 학교지붕 이 떨쳐나선 인민의 씩씩한 자애로운 그 영상은 기쁠 때 성 《광명성1》호가 만리창공

새 조선의 환희와 격동인 내 조국, 그 품이 너무도 소 었다. 나는 넋을 잃고 오래도록 원하였고 남쪽으로 진격하는 바라보았다. 어쩐지 가슴이 대오의 앞장에서 불타는 락 하오.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 과 라남의 봉화가 타올랐다. 황리에 진행된 공화국창건 본다.

지금도 조국해방전쟁승리 북사회주의에 마지막압력을 성호물길공사의 완공, 현대 운 우리의 국기가 국기게양 포-17》형에 새겨진 붉은별 로자들을 보면서 눈굽을 훔 나에게도 조국이 있고 우 기념관을 참관하여 비발치는 가하고있소.》 적인 닭공장과 메기공장, 양 대를 향하여 솟아오를 때 나 은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받 치였다.



라마다 국가의 상징인 국기 하는 맹수를 그려넣거나 민 겨넣은 국기가 있는가 하면 기도 있다.

름답고 멋이 있었다.

국가의 국기를 만들

국기를 붉은색, 흰색, 푸

우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 오군 한다. 불타는 고지에서 공화국기 를 우러러 다진 그날의 맹세 는 적들에게 체포되여 34년 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철창 속에서 보낸 나의 마음속에 서 언제 한번 잊혀지거나 흔 들린적이 없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철창속에서의 투쟁은 그대로

원쑤들과의 사상과 신념의 몸은 비록 캄캄한 먹방에 진(현재 김책시)에서 흘러갔 다고 3가지 색에 담긴 깊은 서 기적의 천리마를 날게 해 사실 1990년대중반기 조국 나라를 찾아주시고 노예살이 지금도 지난 3월 24일, 그 위용도 자랑스럽지만 람 일 따뜻하고 포근하다.

갇혀있어도 전후 재더미우에 더욱 억척으로 굳어졌다.

숭 난 색바랜 공화국기발을

바라볼 때면 이 기발 휘날

리며 1211고지를 지켜 청춘

도 생명도 바쳐 싸우던 전

이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 시였다. 명은 어떻게 될것인가.

그러나 태양은 결코 꺼지 차를 어깨로 밀고 사품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였다. 길, 쪽잠과 줴기밥으로 날과

내가 위대한 장군님의 달을 보내시고 궂은날 마른 존귀하신 영상을 처음으로 날, 휴식일과 명절날에도 쉼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뵈온것은 신문에서였다.

감옥에 갇힌 나를 후원 해주던 대학생들이 들여보 물러주신 사회주의 내 조국 르가 예언했던것처럼 절세 위대한 장군님의 환하신 욱 빛내여가시려는 결사의 각 위대한 영웅, 위대한 지도자》 였다.

나, 슬플 때나 나를 따뜻이 으로 날아올랐고 철벽의 성

어느날 나를 끌어낸 놈들 욱 기운차게 휘날렸다. 은 득의양양하여 지껄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생각을 고쳐할것을 권고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성강 서깊은 만수대기슭에서 성 격능력을 잘 알수 있다고 같으면 특권층이나 살수 있 계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대규모토지정리와 개천-태 74돐 경축행사에서 자랑스리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 에 보금자리를 편 평범한 근

순간 나는 피가 거꾸로 치 솟았다. 나는 놈들을 쓰겁게 바라보며 내쏘았다. 《당신들은 교도소지붕에

공화국기가 날리는것을 보지 못했는가. 하긴 당신들의 눈 에는 보이지 않을거요. 그러 나 나는 펄펄 휘날리는 공 화국기를 매 시각 심장으로 보고있다. 똑똑히 알아두라. 우리에게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신다. 그이께서 계시여 세 상이 다 무너져도 공화국은 끄떡하지 않는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은 끄뗙없다! 믿음은 철창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길을 마음속으로 따라걸으며

다. 나의 아버지는 일제가 의미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 주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앞에 겹쳐든 난관과 시련은 를 강요당하던 천덕꾸러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직접 홍색공화국기아래 날에날마 우리의 국기는 결코 세월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워주 참으로 엄혹한것이였다. 민 게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을 적인 지도밑에 신형대륙간탄 다 인민의 리상향, 희한한 별 의 바람에 의해 나붓기는것

> 그러던 1994년 7월 8일 을 요란하게 떠들며 그 무슨 존귀하신 영상으로 빛나는 적강세 힘있게 과시, 조선민 살림집건설장을 찾았던 나는 만고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 《급변사태》를 꿈꾸었다.

바로 그러한 때 강철의 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 전략무기 출현! 고 생사기로에 놓였던 조국 였다.》 한동안 앞이 캄캄하였다. 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해주

미끄러져내리는 야전승용

그 길은 위대한 수령님 있다.

이라는 적들의 궤변을 흩날 형태의 옷들을 많은 사람들 였다.

어장들이 생겨났으며 구월산 과 칠보산, 장수산 등이 인 민의 문화휴양지로 훌륭히 꾸려졌다.

나붓겨다오 이 세상 다할 때까지

후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 의 손길에 받들려 비전향장 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안겼 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를 찾아왔었다.

그들은 물었다. 비전향장 기수들이 수십년세월 형언할 수 없는 고문과 악형속에서 공화국기를 가슴속에 간직하 고 꿋꿋이 지켜온 신념의 원 천은 무엇이였는가고.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해주었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조국이였다. 빼앗긴 의 경지에 올라섰던가. 원쑤들은 《3.3.3붕괴설》 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은 어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현장에 나붙은 인상깊은 글 누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국의 국기가 새겨져있었다.

국기가 펄펄 휘날리고있다. 대한 조선의 모습이였다.

어디서나 국기가 휘날리고 《세계에 유일무이한 신형대 상징탑마냥 하늘높이 솟아 누구나 국기를 사랑하고있다. 륙간탄도미싸일》, 《가장 거 난 80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 대한 괴물미싸일》이라고 대서 한 다양한 초고층, 고층살림 위대한 수령님 찾아주신 감싸안으며 새힘을 안겨주 새로 다져진 내 나라의 푸 이 모시여 우리의 국기는 더 특필했듯이 《화성포-17》형 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른 하늘가에 공화국기가 더 욱 자랑스럽고 더욱 빛나는 의 몇가지 공개지표들만 놓 인민들에게 통채로 안겨지는 국기로 되였다.

는 솟구치는 격정과 환희에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국기가 영원히 퇴색을 모 르고 계속 빛나려면 국력이 강해야 한다.

제국주의폭제와 전횡이 무하는 지구상에서 힘이 하여 하루아침에 령토가 란 도질당하고 신성한 국기가 렬강들의 군화발에 짓밟히 는 비참상을 얼마나 많이 보 아왔던가. 그것을 목격하면 서 인류가 절감하고있는것은 국력이자 곧 국권이고 국기 의 불멸함이라는 철리이다.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여 우리 국가의 위상이 얼마나 최상

히 지켜주신 우리 장군님이 장쾌한 광경을 잊을수 없다. 마나 눈부신것인가. 주체조선의 절대적힘, 군사 얼마전 화성지구 1만세대 세차게 휘날리고 쌓으신

그것은 지구를 통채로 거대

사적대사변이였다.

그때 신형대륙간탄도미싸 는 글발인가. 일 《화성포-17》 형의 이동 사랑하는 사회주의조국, 니라.

지 않았다. 우리 조국에는 파도를 맞받아 헤치시며 하늘가에 높이 띄워주시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로 정히 새기시고 우리 인 기폭에서 나는 존엄높은 강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내리신 친필명령에 따라 민이 최고의 존엄과 지위에 대국의 위대한 대표자이신 총대로 지켜주신 기발, 우리의 《화성포-17》형을 싣고 지 맞는 가장 훌륭한 행복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영상 국기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축을 울리며 발사진지로 향하 누리게 할 리상과 열망으로 을 숭엄히 우러르며 온 세 강국의 존엄과 기상을 시위 는 이동식발사대차, 진정 그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상을 향해 소리높이 웨친다. 없이 이어진 그이의 전선길… 하며 더욱 힘차게 펄럭이고 모습은 그 누구도 감히 견줄 총비서동지의 손길아래 최상 수 없는 절대적힘을 만장약하 의 문명과 행복의 령마루를 여 승리는 영원한 우리의것, 지금은 어디 가나 우리의 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담 향해 하루를 1년, 10년맞잡 조선의것이라고!

> 국가적인 명절과 주요기념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조국이다. 운 일터들마다에서도 자랑스 감히 우리 국가와의 군사적 거리, 새 문명을 체험할 때 의 구절을 새겨보는것으로 그이께서 계시였기에 머지 러운 우리의 국기들을 볼수 대결을 기도한다면 반드시

> > 고보아도 공화국전략무력이 것을 보면서 감동을 금치 못 얼마전 수도 평양의 유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 했는데 얼마후에는 남조선

연히 빛을 뿌릴 영원한 승리 의 상징이다.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

아 우리의 국기에서 더욱 찬

포-17》형이 솟구쳐오른 그 아득한 높이야말로 세계의 상상봉에 올라선 우리 국가 의 국력의 높이, 존엄의 높 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럴수록 우리 공화국을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 대한 나라로 우뚝 올려세 우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은 격정 으로 젖어든다.

자신께서는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대로 우리 나 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 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다고, 우리 나 라를 세계의 상상봉우에 올 려세우자는것이 자신의 결심 이라고 하시며 희생적인 헌신으로 불패의 강국을 떠올 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 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사상과 지략에서도 으뜸이 시고 출중한 령도력과 담력 과 배짱에서도 이 세상 제일 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여 우리 공화국의 전략 적지위는 비상히 높아지고 세 계는 작고도 큰 나라, 강대 한 조선을 신비의 눈길로 바

라보고있다. 국력이 강하면 국기도 빛

나는 법이다. 온 세상이 우러르는 탁월한 강국이 되고 존엄과 위용을 멸칠수 있다는것을 우리 조 국의 70여년력사는 긍지높이

말해주고있다. 어찌 그뿐이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세계가 보란

발을 본적이 있다.

《람홍색국기아래 모든 꿈 이루어지리!》

식발사대차에는 람홍색공화 그 모습을 세상에서 제일 하기에 오각별 찬란한 람 위대한 우리 인민의 모습으 홍색공화국기, 성스러운 그 이로 질풍쳐 내달리는 우리

사상초유의 시련과 난관을 토록 나붓길것이라고! 마다 나는 탄복을 금치 못 마감하려고 한다.

지난 4월 평양의 송화거리 행성의 수많은 언론들이 에 사회주의문명의 응건한 는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그 옛날 기껏해야 초가삼 간이 꿈이였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초고층, 고층의 현대 적인 새집들에서 부럼없이 살 고있으니 천지개벽이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 겠는가.

참으로 지난 시기 상상조 차 하지 못하였던 행복과 문 명이 런이어 꿈만 같이 펼쳐 지는 우리 조국이다.

릉라인민유원지와 문수물 놀이장, 교육자살림집들, 인 민야외빙상장, 옥류아동병 원, 류경안과종합병원, 과학 기술전당, 마식령스키장, 양 덕온천문화휴양지, 송도원국 제소년단야영소, 철령아래 사과바다, 현대적인 화장품 공장들...

만복의 창조물들이 우후 죽순처럼 조국땅 방방곡곡 에 솟구쳐올라 어서 오라 사 람들을 부르고있다.

그림처럼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정녕 노래 《조국찬가》의 구절그대로 오랜 세월 바라 던 우리 인민의 모든 세기적 숙망이 풍요한 열매로 주렁지 는 내 조국이다.

일찌기 어느 한 작가는 《조국은 훌륭하기때문에 사 랑하는것이 아니라 제땅이기 에 사랑한다.》는 유명한 말 을 남기였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눈 부신 현실로 펼쳐지는 조국 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보면 위인을 모실 때 작은 나라도 서 나는 《조국은 제땅이기 에 사랑할뿐 아니라 훌륭하 기에 더욱 사랑한다.》고 말 하고싶다.

그렇다.

세상에 나라는 많아도 강 대한 우리 조국이 제일이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퍼나 듯이 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는 우리의 사회주의대지가 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심장의 박동으로

그이께서 위대하시기에 우리 조국이 위대하고 우리 인민이 위대하며 우리의 공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있 화국기가 세기를 이어 창 굥높이 휘날리고있는것 아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와

천하제일위인을 높이 모시

더불어 우리의 국기는 무궁

우리가 지켜온 기발 대를

이어 지켜지리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우리

국기 불멸하리 영광찬 공화국의 력사를 길이 전하며

눈부신 람홍색 그 빛은 누리를 뒤덮으리라 사랑하리라 빛나는 우리의

국기를

나붓겨다오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비전향장기수 김 동 기

불개항력 - 일심탄

기의 자랑스러운 년륜이 아 로새겨졌다.

긍지와 행복속에 공화국창건 74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수도 평양의 유서깊은 만수대기슭에서는 온 나라 인민이 지켜보는 속에 공화 국창건 74돐 경축행사가 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공화국 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 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진행된 경축행 사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 에 위상떨치는 공화국의 영광 찬란한 력사와 휘황한 미래,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 의 불가항력을 장중하고도 아 름다운 음악서사시로 펼쳐보 인 특색있는 공연이 진행되여 경축의 밤 사람들의 마음을 끝없이 설레이게 하였다.

위대한 당중앙을 따르는 길 에서 모든 영광을 맞이할 충 성과 애국의 일편단심이 맥동 치는 공연에 관람자들은 열 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으며 령도자를 우러러 참가자들이 열광의 환호를 련속 터치는 만수대기슭은 주체조선의 일 심단결의 힘을 과시하는 뜨거 운 격정의 대하를 이루었다.

수령과 인민이 하나의 사상 과 뜻.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은 세상에 오직 하나 우리 공화국밖에 가진 것이 없는 절대적인 힘이다.

공화국의 성스러운 력사는 단결로 개척되었으며 대를 이 어 단결의 위대한 힘으로 승 승장구하여온 긍지높은 행로 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위대한 단결이 있어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 고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치고 전승의 기적을 환희롭게 안 아올수 있었으며 적대세력들 의 가증되는 압살책동을 짓 부시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 게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혼 연일체의 위력으로 공화국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같은 엄혹한 시련을 이겨냈으며 적 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 을 짓부시며 세계적인 군사강 국으로 솟구쳐올랐고 오늘은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주체조선이 가진 이 절대 누구나 승리자의 크나큰 적힘, 불가항력인 일심단결을 마련해주신분이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다.

>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를 찾기 위한 항일무장 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혁명 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 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 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인 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 민대중에게 의거하시고 인민 의 생명안전과 리익을 첫자리 에 놓으시였다.

> 바로 이런분이시기에 세상 에서 제일 전지전능한 존재 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이라 는 위대한 지론을 내놓으실수 있은것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일심단결은 어버이수령님에 의하여 혁명 의 천하지대본으로, 공화국 의 고귀한 전통, 영원한 주 추로 될수 있었다.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강 원도의 법동농민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대답은 령도자

게 뭉쳐 침략자들을 쳐물리 치였는가를 감동깊게 보여

주체39(1950)년 10월중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깊은 밤 전선길을 달리시다 가 어둠속에서 북행길에 오 른 인민들을 만나게 되시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행의 맨앞에서 달구지를 끌 고가는 로인곁으로 다가서시 여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가 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미처 위대한 수령님을 알

아보지 못한 로인은 북쪽으 로 간다고, 인민군대와 함께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는 길 이라고 거침없이 대답하였다. 이 란리통에 김일성장군 을 왜 찾아가는가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물으심에 로 인은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 야 살길이 열리고 우리가 전 쟁에서 이긴다고 힘주어 대답 올리였다.

바로 이것이였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 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 를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다. 시고 군력강화의 길을 걷고걸

는 진리를 신념으로 간직하 고 굳게 뭉쳤기에 공화국은 보병총과 원자탄과의 대결이

라고 할수 있는 지난 조국해 방전쟁에서 침략자들을 타승 하고 위대한 전승을 안아올 수 있었고 전후에는 미국이 100년이 걸려도 할수 없다고 하던 복구건설을 단 몇해어 간에 해제끼고 남들이 수백 년이 걸려서야 했던 공업화 를 천리마를 타고 14년이라 는 짧은 기간에 이룩하는 기

통

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 통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 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더욱 공고한것으로 되였다. 1990년대중엽 공화국은 민

족의 대국상과 련이은 자연 재해,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책동 등 전대미문의 격 난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 엄혹한 시련의 나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맡기고 가 신 조국과 인민을 지켜야 한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 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으시고 쪽잠과 줴기밥으로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 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는 전체 인민을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더욱 굳게 결 속시켰고 사회주의강국건설 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 는 기적을 안아오게 하였다.

주체92(2003)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께서는 군인들과 인민들 을 그리워하고 군인들과 인 민들은 자신을 그리워하는것 이 바로 우리의 일심단결이 고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라 고 하신 뜻깊은 교시는 공화 국의 일심단결이 어떤것인가 를 다시금 새겨안게 하는 고귀한 명언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그리워하 고 인민은 령도자를 그리는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전통은 오늘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더 욱 활짝 꽃퍼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일심단결은 장군님께서 물

려주신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 이며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 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인민은 자신의 운명을 걸고, 목숨까지 내걸고 지켜야 하 는 더없이 귀중한 존재로 자 리잡고있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뼈를 깎 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죽 음도 불사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장속에 고패치고있는 인민에 대한 멸 사복무정신이다.

나운 풍랑도,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삼복의 폭열도, 생명 지 못했다.

모시듯이 인민을 위해야 한다 고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무 슨 일을 하나 해도 인민의 요 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 도록 하시는 숭고한 인민관, 군인들을 찾아 적의 총구가 도사린 최전방에까지 서슴없 이 나가시는 병사들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 인민들

이어졌다.

인민을 위하여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 의 길, 멸사복무의 길은 사 을 위협하는 악성병마도 막

위대한 수령님들을 받들어

의 생명안전을 지켜주시려 병 을 앓는 사람들까지도 때없 이 드나드는 약국에도 나가 시였던 그이의 희생적인 헌신은 천만인민의 심장을 령도자에 대한 충정으로 더 욱 끓어번지게 했고 그것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더 반석같이 다지는데로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 불보다 뜨거운 인민 사랑으로 방역대전의 승리를 안아오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추동하 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 의 발걸음에 자신들의 발걸 음을 따라세우며 국가경제발 전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증 산과 창조대전을 힘있게 벌 려나가고있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올해 인민경제계 획을 앞당겨 수행하고있으며 금속공업부문과 화학공업부 문, 건설부문에서는 올해 계 획된 주체화대상공사와 중요

아무리 엄혹한 도전과 난관 이 앞을 가로막아도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 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이 공 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굳 게 자리잡고있기에 그이의 구상은 곧 인민의 꿈과 리 상이 되여 현실로 펼쳐지고 그이의 결심은 인민의 신념 과 의지가 되여 위대한 승리 와 기적을 안아오고있다.

하기에 세계의 수많은 인 사들은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은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의 원천이다.》, 《조선 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반 드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 울것이다.》 《김정은령도자 를 높이 모시여 조선의 일심 단결은 영원하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고있는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뜻과 지향 을 함께 하고 그 길에서 오 가는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이루어진 혼연일체야말로 공 화국이 겹쳐드는 시련과 난 관을 이겨내며 천하제일강국 대상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의 휘황한 래일을 향해 질풍 노도처럼 내달릴수 있게 하 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 로 되고있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 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전체 인민이 하 나의 사상의지, 덕과 정으로 굳게 뭉쳐있고 조국의 부강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해나가는 것은 우리 나라에만 고유한 우월성이며 이 땅의 모든 위대한 기적을 탄생시키는 원 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힘, 우 리 국가의 제일가는 무기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사상의지 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공고히 다질데 대하여 지적 하시였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 어 이 땅우에 일심단결의 새 력사를 써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운명의 태양 으로 더욱 높이 모시고 그이 의 두리에 굳게 뭉쳐 천하제 일의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다.

리은심



지금 날로 우싞해지는 재 해성이상기후현상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들불과 산 사태, 폭우와 큰물에 의해 수많은 인적 및 물적피해를 조건에 맞게 국가비상설재해 입고있다.

이것은 오늘날 사 람들로 하여금 재해 성이상기후현상에 대 비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지 않는다면 수 시로 들이닥치는 자 연의 광란으로부터 엄청난 불행과 고통 을 면치 못한다는것 을 깨닫게 하고있다.

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 계를 정연하게 세워주신분도 게 추진해야 할 중대사는 국 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언 제나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토관 리를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 을 돌리시였다.

주체101(2012)년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 일군들과 하신 담화 《사회 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 군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국 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 여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 을 받들어 국토의 면모를 사 연재해에도 끄떡없게, 안전하 회주의강국의 체모에 어울리 게 일신시켜나가는것을 국토 였다. 관리부문에서 틀어쥐고나가 야 할 총적방향, 총적과업으 존립과 발전, 인민의 안녕 로 제시해주시였다.

그이께서 하신 력사적인 로 대처해야 할 3대위기의 담화에는 공화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는 인민 의 락원으로 만드시려는 열렬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를 한 애국의 세계가 비껴있다.

국토관리사업의 방향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방도에 대해 환히 밝혀주신 은 국가의 번영발전과 인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들의 생명수호를 위한 중요 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관개 산림복구전투의 사령관이 되 지여 온 나라에 나무심기운 론 후대들을 위하여서도 반 논밭물도랑치기와 물길제방보 🕏 동의 된바람을 불러일으키시 드시 모든 사업에 앞세워나 강사업에 힘을 넣는 한편 농 🕏 는 한편 치산치수, 사방야계 가야 하는 중대혁명과업이라 작물들이 태풍과 큰물로 넘

공사를 계획성있게 내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재해성이상기후현상이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있는 현실적 방지위원회를 내오도록 하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토건설과 생태환

경보호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과

업들을 제시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9월에

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

의를 지도하시면서 모든 시,

토관리사업을 강력히 추진하

게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시

하나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에 열린

몸소 지도하시면서 재해방지

자연재해를 현시기 국가

강화하시기 위해

을 위하여 반드시 책임적으 물에 의한 인적, 물적손실

한 사업이며 우리 세대는 물 구조물보수와 하천바닥파기, 🕽

고 하시면서 국가위기대응능 력건설방향에 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천명하신데 이어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 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토관리사업과 재해방지를 위

한 사업이라고 밝혀주시였다.

해마다 재해성이상기후현상

으로 태풍과 폭우가 들이닥

친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

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체 인민의 위

기대응의식은 높아지고 재해성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철저

히 막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각지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

지리적조건과 구체적인 실정

에 맞게 계획을 세워 치산치

수사업과 사방야계공사를 다

그치는것과 함께 태풍과 큰

을 가져올수 있는 불비한 요

소들을 찾아 대책하는 사업

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또

사업도 적극 벌리고있다. 태

풍과 큰물에 대비하여 배수

설비들의 만가동을 위한 준

한 농작물피해를 막기 위한 2

한사람같이 펼쳐나서고있다.

도 착심히 진행하고있다 나라의 위기대응능력을 획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기적으로 향상시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들 의 생명안전을 담 보하고 후대들에게 재해방지능력을

그 어떤 자연재해 에도 천만년 끄뗙없 을 금수강산을 물려 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교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에 떠받들려

어지거나 침수되는 경우 그

에 대한 살균제와 영양액주

기를 제때에 할수 있는 사업

자연재해를 막고 인민들 는 등 국가적인 위기관리체 도 현시기 공화국정부가 힘있 오늘 공화국의 산천은 더욱 아름다와지고 인민의 웃음은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몇해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 설된 미래상점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의 의도에 맞게 미래상점을 상업봉사기지의 본보기답게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인민 을 위한 현대적인 봉사기지 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늘여 가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

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행복에서 제일 큰 락을 찾으시는 그이이 시기에 미래상점의 일군들 과 봉사자들에게 인민들의

요구가 곧 봉사활동의 기 없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 준이라는 관점밑에 손님들 시였다. 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봉 사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하 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 며 선진적인 봉사방법을 적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전거리의 한 식당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원수님께서는 식탁의자가 인 민들이 앉기 편리하게 만 들어지지 못한것을 대번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

인민들의 요구가 곧 봉사 활동의 기준!

일군들에게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을 깊이 새겨주는 되지 않을것이라고, 식당의 극 받아들이고 수요가 높 뜻깊은 순간이였다.

식탁의자를 보시고서도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의자에 앉아보 식당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라고 하시고 그가 앉은 모 양을 이모저모로 다시금 살 퍼보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의자등받이에 허리 를 기대려면 직각으로 앉아 야 하겠는데 직각으로 앉 아 어떻게 밥을 편안히 먹 을수 있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런 의자에 앉 아 식사를 하면 소화도 잘 자를 앉기 편안하게 잘 만 들어야 한다고, 편안한 다 음에야 미학이라고 다정히

이ㄹ시였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워칙에서 모든것 을 세심히 따져보아야 한다 는 숭고한 뜻이 담긴 귀중 한 가르치싞이였다.

본사기자

도가 있다.

소들이 훌륭히 꾸려져 인 민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이 울려퍼지고있다. 롱구장과 배구장, 모래 터배구장까지 있는 릉라 물놀이장, 립체률동영화 관과 거울집, 웃음집, 미 니골프장이 있는 릉라유희 장, 곱등어들이 재주를 부 리는 릉라곱등어관을 비롯 하여 섬의 여기저기에 꾸 려진 현대적인 문화휴식터 들이 사람들을 어서 오라 부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릉

라도를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꾸

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드시여 인민들

꽃바구니모양의 섬인 릉라

오늘 릉라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민의 문화휴식장

풍치수려한 대동강에는 에게 이토록 훌륭한 릉라인민유원 지를 마련해주시였다. 주체101(2012)년 4월말 이곳 유

원지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릉라도지구를 릉라인민 유원지로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 면서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로고를 는 몸소 첫 《손님》이 되시여 인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놓고보아 도 릉라인민유원 지라고 하는것이 제일 좋다고, 유 원지명칭에서 인 민이라는 두 글 자를 빼놓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여러 차 례에 걸쳐 릉 라인민유원지건 설장을 찾으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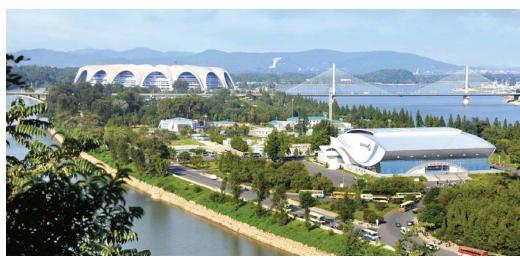
원수님께서는 유원지건설에서 사소 한 흠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흙먼지바람 이 날리는 험한 날에도 몸소 종이 장우에 그림을 그려가시며 유원지 가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유원지로 건설되도록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 시였다.

그리고 유원지가 완공되었을 때에 내고있다.

들이 타게 될 유희기구의 지 확인해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 해 한송이 또 한송이 피우신 꽃송 이들인양 꽃바구니모양의 섬을 가 두 채운 훌륭한 문화휴식터들에서 오늘 인민은 기쁨과 랑만의 웃음꽃 을 활짝 피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

본사기자 리경월



E CHARLES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리념으로 하는 나라

오래동안 인류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나 캄파 넬라의 **《**태양의 도시**》**를 애독하며 자기의 꿈과 리상 이 실현될 지상천국을 그려 보았다. 하다면 인류가 그처 럼 바라던 지상천국은 이룰 수 없는 공상이였던가.

언제인가 공화국을 방문한 세계종교계의 이름있는 한 목사는 기자에게 《조선에서 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것 은 성서에 있는 모든것이 이 미 이루어져있기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서방의 한 인사도 사회주 의적시책속에서 행복을 누리 는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을 보며 조선이야말로 세상에 없는 인민의 지상천국이다, 죽어서 천당에 갈것이 아니 라 현세의 지상천국인 조선 에서 살고싶다고 자기의 심 정을 토로하였다. 인류의 리 상이 실현되고있는 공화국에 대한 세인의 칭송이라 해야 할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리 념으로 하고있는 공화국에서 는 인민이 향유할 모든 권리 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어길

나라의 곳곳에 훌륭히 일 떠선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 서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 쳐나고 현대적인 살림집들에 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살 고있다. 공장을 하나 건설해 도 그곳에서 일하게 될 로동 자들의 편의가 우선시되고있

으며 누구나 일터의 주인이

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

수 없는 국책으로 하고있다.

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헌신적 으로 복무하고있다. 《나는 사회주의보건제도 의 혜택속에 두번다시 태여 났습니다. 복속에서 복을 모 른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껏 이처럼 따사로운 품이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있었다 는것을 다 모르고 살았습니 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세상

에서 제일입니다.》

이 말은 평안남도 숙천군 의 평범한 농장원녀성이 터친 심장의 고백이다. 뜻하지 않 게 사경에 처하였던 그를 도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온갖 정 성을 기울여 기적적으로 살려 냈다.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 을 나서는 그의 눈앞에 어려 왔다. 머리맡에서 밤을 밝히

서민들이 맘편히 누울 공간

은 어디에도 없다.》. 《수많

은 무주택자들이 불안한 래

일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살

고있다.》고 개탄하듯이 남조

며 극진히 돌봐주던 간호원이 며 갖가지 영양음식을 안겨 주며 왼심을 쓰던 의사선생 들의 모습이…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 에게 과장선생은 말하였다. 정성을 다하여 환자를 치료 하는것은 의료일군들의 응당 한 본분이라고, 인사는 고마 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드 려야 한다고.

날마다 일떠서는 선경거리, 선경마을, 행복의 보금자리에 서 터치는 이 나라 인민들의 격정의 목소리는 또 어떤가.

《나같은 평범한 로동자가 이런 궁궐같은 새집을 받아안 았으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 이 어려있는 새집에 들어서고 보니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 이로 일하여 하늘같은 그 은혜에 보답할 생각뿐입니다.》

《이런 호화주택에서 평범 한 무궤도전차운전사부부인 우리들이 살게 되리라고 꿈 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건설의 대번영 기와 더불어 얼마나 많은 인 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들 이 일떠섰던가.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에 서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초 보적인 로동의 권리와 조건 마저 유린당하고있다.

《업주들은 자동차부속품 선에서 집이 없어 한지에 나 이나 기계는 조금만 손상이

돌아가는 기계에 감기고 짐함에 깔리고 떨어지는 돌 에 맞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조선로동자들의 비참한

한쪽에서는 사회의

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속에 신음하다 숨지고있는것이 남 조선사회의 현실이다.

로대중에게는 사람 못살 지 옥, 인권의 동토대이다.

력 사 에 기 록 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육사업을 혁명의 전 도, 나라의 장래운 명과 관련되는 중대 사로 내세우고 국가 부담에 의하여 전 반적무료교육을 실

나라, 교육의 나라 공 화 국 에 서 실시되고 있는 전반적무료교육

제도는 위대한

수 령 님 께 서 는

에 벌써 유격근거

지들에 아동단학교

들을 세우시고 무

료교육을 실시하도

록 하시였으며 주

체25(1936)년 5월

5일에는 《조국광

복회10대강령》에

서 해방된 조국에

서 의무적인 면비

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밝히시

해방직후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가난한 집 아이

들의 수업료를 면

제하여주시고 전문

학교 학생들과 대

학생들에게 국가장

학금을 주는 조치

를 취해주시였으며 전후에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과 전반

적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하도

록 하심으로써 인민학교(당

시)와 초급중학교(당시), 초

등학원, 유자녀학원, 기능전

수학교, 사범전문학교, 각급

통신학교, 각종 특수교육기 관, 각급 간부양성기관들에

서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

시하고있는 배움의

자, 사무원, 농장원들을 비 김일성주석께서 항 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 이것이 바로 인민대중제일 운 혁명전통에 그

파

0

7

한

주의가 구현된 참다운 인민의 나라,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지구상의 그 어디에 인민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

학자거리, 려명거리, 송화거

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

구,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

문화도시의 본보기인 삼지연

시, 라선시와 함경북도 북

부지구, 황해북도 은화군을

비롯하여 재해지역들에 펼쳐

이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 마을들의 주인은 다름아닌

평범한 과학자, 교육자, 로동

진 행복의 별천지…

롯한 근로인민이다.

대중제일주의를 자기의 본성 으로, 신성한 정치리념으로 하는 나라가 또 있는가.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인 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 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더없는 긍지와 행복감을 안고, 그리 고 그 품에서 펼쳐질 더 좋 을 래일을 그려보며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웨친다.

-인민의 락원에서 우리가 산다고.

본사기자 김 진 혁

의 절규만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여명씩 생죽음 을 당해야 하는것이 바로 남

처지이다.

1%도 안되는 특권층이 돈을 물쓰듯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평범한 근 로자들이 엄청난 치료 비때문에 병이 나도 치

참으로 남조선사회야말로 극소수의 특권층에게는 살기 좋은 곳이지만 절대다수의 근

공화국은 후대교 하여주시였다.

특히 교육사업을 중시하시 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주체48(1959)년 3월 2일 《학생들의 수업료 를 전반적으로 폐지할데 관 하여》라는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내각결정이 채택되

이에 따라 그해 4월 1일부 터 수업료를 완전히 없애는 력사적조치가 취해지게 되였 으며 각급 학교들에서 공부 하는 학생들모두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공부하 게 되였다.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들 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교 력사적뿌리를 두고 육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적 무료교육제의 실시는 공화 국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 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안겨 항일무장투쟁시기 주고 교육사업의 급속한 발 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나라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 기에도 후대들을 위한 무료 교육제도를 변함없이 실시하 도록 하시였다.

주체101(2012)년 9월에 열 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 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 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되였다.

이것은 후대들을 위한 사 어려웠던 때에도 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 로 내세우시고 후대교육사업 에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 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괸 이 낳은 결정체이며 공화국 의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 성에 대한 힘있는 과시였다.

>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 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인 세 상에서 가장 훌륭한 공화국 의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있기 에 이 땅에서는 새세대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수업 료라는 말조차 모르고 배 움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고 있다.

본사기자

남조 삶에 굶주린 아이들 사망 추모!

이 땅에 사는 사람들모두

가 공화국을 어머니조국이라

부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

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 고있다. 조국이란 무엇이기

에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그

이 사랑하며 애국의 땀과 열

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것인가. 공화국의 후보원사이

며 교수 박사인 평양의학대

후보원사인 송예옥선생에게는

남달리 호칭이 많다. 정성리

평양의학대학에 도착하여

모습을 지켜보았다. 뭇별처

럼 빛나는 눈길들이 모아지

는 속에서 강의내용을 친절

깊이있게 배워주는 열정넘친

그의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

야말로 암흑에서 광명에로

든 꿈과 희망을 이룬 행복자

였습니다.》

르는것은 무엇인가고.

위자, 손꼽히는 교육자…

생을 찾았다.

《특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 《자본과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인권불모지》, 《공 정과 평등이 사라진 땅》…

이것은 남조선의 그 어느곳 에서나 울려나오고있는 저주 와 개탄의 목소리이다.

남조선에서 극소수의 특권층은 호화로운 생 활을 누리고있는 반면 에 절대다수의 근로자 들은 극심한 생활난에 허덕이며 비관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있다.

살림집문제만 놓고보더라 도 특권계층들은 여러 호화 주택들을 독차지하고 부귀와 향락을 추구하고있지만 서민 들은 쪽방과 짐함, 판자집과 같이 집 아닌 집에서 살고있 는 형편이다.

남조선언론들이 《이 땅에

아빠트는 많지만 하늘아래

어나고있다. 오죽했으면 광주시의 한 청

년이 《몸담고 살 곳조차 없 다. 래일이 오는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라는 유서 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겠는 가. 이런 비극은 남조선에서 꼬리를 물고일어나고있다.

앉는 사람들이 날을 따라 늘

되여도 큰 변이라도 난듯이 고아대지만 로동자가 다치거 나 기계에 깔리는것쯤은 대 수롭지 않은 일로, 흔히 있 을수 있는 일로 무난히 여긴 다. 이 땅에서 로동자들은 기계부속품보다 못한 인간,

무권리한 존재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로동자

만난 사람들 《통일신보》가

머니진국 9

- 평양의학대학 교원 후보원사, 교수,

학 림상제1의학부 보건경영학 가정이 걸어온 인생행로를 통 강좌 교원 송예옥선생과 그의 하여 그 답을 찾아보게 된다.

암흑에서 광명에로

공화국에서 첫 50대녀성 야기로 시작되였다. 《해방전 충청남도 홍성군

에서 태여난 아버지에게는 꿈 론전문가, 보건정책전문가, 보 이 있었습니다. 시문학에 취 건경영학분야의 실력있는 권 미를 가지고있었던 아버지는 짬만 있으면 고향산천의 아 교육자로서, 과학자로서 남 름다움을 자작시에 담아 읊 들이 부러워할 성공적인 길 기도 하고 망국노의 설음을 을 걸어온 그 비결을 알고싶 글작품에 담아 터치기도 했 어 얼마전 우리는 송예옥선 습니다.》

어러서부터 수재로 불리웠 지만 너무도 집안이 가난하여 정한 조국의 품을 찾아가는 작품창작으로 문학발전을 그를 만나보려고 하니 대학 자습으로 소학교과정을 마쳐 의 일군들은 그가 학생들에 야 했던 송봉렬이였다. 하지 게 한창 강의를 하고있다고 만 극심한 가난속에서도 문 지 못한 소망을 송봉렬선생 사상을 받들고 앞장에서 내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한동 학에 대한 그의 꿈만은 봄날 은 조국의 품에 안겨 모두 달리고있는 실력가이고 재사 안 송예옥선생이 강의하는 의 새싹마냥 움터났다.

했건만 악착한 왜놈들의 세 다른 소질을 가지고있다는것 상에서 불쌍한 문학소년의 꽃 을 알고 나라에서는 대학에 옥선생이 지난 35년세월 교 망울같은 꿈은 피기도 전에 서 마음껏 희망의 나래를 펴 단에 서있으면서 2개의 새 하면서도 알기 쉽게, 폭넓고 무참히 스러지고말았다.

장나고 조국은 해방되였다. 였다. 허나 《해방자》의 탈을 쓰 얼마후 송예옥선생과 마주 고 기여든 미군에 의해 남녘 화 《사랑의 기적소리》를 비 인민보건실천에 크게 기여한 앉아 물었다. 인생의 꿈과 희 땅은 또다시 식민지로 전락 롯한 영화문학작품들과 수많 데 대하여 그리고 국가학위 망을 이루고보니 먼저 떠오 되였다. 군정을 선포하고 인 은 아동문학작품들을 훌륭히 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 창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과 심의위원장으로서 해마다 《자식들이 성장할 때마다 면서 애국자들을 닥치는대로 기쁨을 드리였으며 재능있는 50여건의 과학론문들을 심의 제일 기뻐하시던 아버지의 모 학살하는 미군의 야수적만행 작가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 평정하고 여러명의 박사를 비 습입니다. 눈을 감기 전 박 은 20대청년의 가슴에 항거 았다. 사가 된 딸의 모습을 보고 의 불길을 지퍼올렸다. 그는 싶어하시던 아버지를 잊을수 미군정통치를 반대하는 투쟁 없습니다. 사실 저의 아버지 의 앞장에서 용감히 싸웠다.

인생전환을 하고 바라던 모 정사를 펴시는 공화국북반 국적인민들의 투쟁을 감명깊 서, 발명증서, 과학기술성과 부에서와 같은 인민의 참세 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오늘 도입증만 해도 30개가 넘는 상을 세워야 잘살수 있다는 도 사람들이 애독하는 인기 다고 한다. 높은 실력과 실 이외로 취재는 송예옥선생 굳은 믿음을 철창속에서도 소설로 되고있다. 의 아버지(송봉렬)에 대한 이 굽히지 않은 송봉렬선생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주저없이 장군님의 품을 찾아 떠났다.

광명의 길이였다. 저주로운 남조선에서 이루 이루었다. 그가 문학에 남 이다. 원한의 세월은 드디여 끝 그토록 갈망하던 작가가 되 건경영학》을 비롯한 7종의

그후 송봉렬선생은 예술영 100건의 소론문을 집필하여

특히 송봉렬선생이 창작한 을 키워낸데 대하여 알게 되 장편소설 《푸른 갑옷》(상, 였다. 하)은 임진조국전쟁시기 평양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성을 지켜 용감하게 싸운 애 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증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아가고있는 송예옥선생에게

오랜 작가들을 위해 로작가 없었다. 실을 내오도록 해주신 은정 어린 조치가 있어 여든살이 훨씬 넘도록 창작활동에 전 념해온 송봉렬선생이였다. 사람답게 살수 있고 너희들

어찌 그뿐이라. 다섯자식모 두가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 양의학대학을 비롯한 대학들 을 졸업하고 어엿하게 성장

하였으니 그는 더 바랄것이 의 목소리였습니다.》

축복받은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는 말이 있다. 송봉렬선생이 인 그 길은 암흑의 세상에서 진 민들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추동하였다면 그의 딸 송예 옥선생은 나라의 교육증시

> 취재과정에 우리는 송예 교과서와 12종의 참고서, 학직수여위원회 보건경영학분 롯한 많은 학위학직소유자들

지금껏 그가 받은 조선민 적으로 값높은 인생을 수놓

많은 사람들이 아낌없는 찬 함을 모르는 힘과 열정을 안 았다. 사와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 겨주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있다.

주 이야기하군 하였습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만을

의 꿈도 실현될수 있다고 말

녀성교육자, 녀성과학자로 서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가, 천을 알아야 한다는 자각을 그 무엇이 그를 오늘에로 이 끌었을가. …

송예옥선생은 이야기했다.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축복이 생이였다. 있었기때문이라고.

《1961년 8월 15일이였습 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다. 강의안 한번 보지 않고 도록 해주었다. 마침내 그는 과목을 개척한 사실과 《보 내가 살고있던 중구역 경상 시였습니다. 인민반장을 하 지난 오늘에도 잊혀지지 않 던 어머니가 너무 기쁜 나 는다고 그의 제자 머지 갓난애기인 나를 안고 들은 추억하군 한 수령님앞에 나섰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태여난 쏙 들어오는 강의 지 여덟달밖에 안되는 저를 에 모두가 반할 정 사랑의 한품에 꼭 안아주시 도였으니 왜 그렇지 며 딸이 귀엽게 생겼다고. 앞으로 잘 키우라고 정을 담 아 축복해주시였습니다.》

돌도 채 되기 전에 어버이수령님의 축복을 받아 안은 송예옥선생의 삶은 달 리될수 없었다.

태양의 따사로운 해빛이 아 기에게 슬기를 준듯 송예옥 선생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였다. 평양의학대학에 내세워주신분은

입학한 후에도 뛰여난 성적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자 으로 대학의 로교수들을 놀 래웠다.

대학시절 의학부 사로청부 믿고 살라고, 그 품에서만 위원장(당시)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21살의 꽃 입니다. 이것은 판이한 두 사 나이에 영광의 기념사진을 회를 체험한 아버지의 심장 찍던 날은 송예옥선생에게 있어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 의 시각인 동시에 새로운 맹 세를 다지는 날이였다.

높뛰는 보답의 맹세는 진 교단에 선 첫날부터 학생들 안고 앉으나서나 지어 밥을 먹는 한토막의 시간마저 사 색을 멈추지 않은 송예옥선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열 정은 풍만한 결실을 가져왔 붙었다. 단 한명도 헛눈을 팔지 않게

다. 너무도 귀에 쏙 않겠는가. 교육사업과 과학

연구사업에서 이룩 된 소중한 성과들, 늘어나는 명예칭호 와 중서들마다에 바쳐온 혼신의 땀 과 열정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고 온 나라가 다 알게

주체99(2010)년 11월 평양 의학대학을 몸소 찾으시여 공 이 나라의 평범한 교육자로 로있는 교육자들과 함께 사 서 응당 할 일을 한 저를 제 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송예옥 선생을 자신의 가장 가까이 에 세워주시는 최상의 영광 을 안겨주시였다.

감격의 그날 절세위인에 대 한 다함없는 신뢰심으로 온 넋을 불태우며 송예옥선생은 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격정의 붓을 억세게 틀어잡 의 품이 아니였다면 어찌 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강화 거룩한 자욱자욱과 더불어 불세출의 대성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가려는 인 고 송예옥선생은 교수사업

이 나날 《경애하는 국에 온넋을 깡그리 바쳐가 김정은동지 보건령도사》, 며 생의 자욱을 값높이 수놓 동의 우리 인민반을 찾아오 강의하던 모습이 수십년이 《우리 당의 보건정책과 그 아가고있다. 빛나는 구현》, 《정성은 사

피시는 길에서》, 《광명백 과사전》 등 국가적의의가 큰 도서들을 련이어 집필하 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 학술토론회들에서 공화국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 과 생활력을 힘있게 해설론 증하여 참가자들의 박수갈채 를 받았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회주의보건의 속성이며 생

명》, 《인민의 건강을 보살

14차 전국교원대회 주석단에 앉혀주시고 몸가까이 부르시 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 주실 때 이 세상 온갖 행복 을 혼자 받아안은 심정이였 습니다.

영광의 그 자리에서 생각했 늘의 내가 있을수 있겠는가 고. 정말이지 따사로운 사랑 발전을 위해 헌신의 로고 의 해빚으로 천만사람들의 에게 하나를 가르치려면 백, 를 새겨가신 절세위인들의 삶을 행복의 열매로 주렁지 우는 곳이 바로 사회주의 내 조국입니다.》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축복 민의 억척불변의 의지를 안 속에 어엿하게 성장하고 영 팡과 행복의 단상에 올라선 을 하면서 도서집필에 달라 송예옥선생, 오늘도 그는 키 워주고 내세워준 위대한 조



위 대 한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1988년 8월하순 어느

절

세

0

과

려

이다.

날 조국에 머무르고있던 제10차 재일조선청년학생 대표단과 혁명력사교원대 표단 성원들은 자기들이 이제 며칠후에 조국을 떠 나기로 되여있는데 출발날 자를 좀 늦추어 공화국창 건 40돐 경축행사에 참가 할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 닐수 없었다. 촞련과 해외동포들뿐 아 니라 경축행사에 참가할

수많은 외국의 대표단들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주체61(1972)년 8월 18일

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을 방문한 총련 요꼬

하마조선초급학교 학생들

을 만나주시고 뜨거운 사

랑과 배러를 돌려주신 날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의 음악무용소조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뜻깊은

담화를 나누시였으며 그들

모두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뜨거운 은정을 베풀

는 조건에서 숙식조건과 수송수단을 비롯하여 걸 리는 문제들이 한두가지 가 아니기때문에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던 것이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두 대표단의 인 원이 모두 얼마나 되는가 고 물으시였다.

100명에 가깝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그들이 공화 국창건 40돐 경축행사에 참가시켜줄것을 열렬히 희 망하면 그 소원을 실현시 켜주어야 하겠다고, 해당

대로 그들의 행사참가문제 를 꼭 해결해주어야 한다 고 가르쳐주시였다.

총련대표단 성원들의 소원을 헤아리시여

두 대표단의 행사참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즉석에서 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그 일군 의 뇌리에는 불현듯 어느해 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을 방문했던 총련교육 일군대표단을 위하여 전국 교육일군대회를 예정보다 앞당겨 열도록 하여주신 일이 떠올랐다.

그때 총련교육일군대 표단이 전국교육일군대회 가 열리기 전에 떠난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얼마 나 섭섭해하겠는가, 위대한

한 대책들을 다 취해주시 였다.

격에 휩싸였던지 모른다.

정화였다.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그날의 영광 가슴에

얼마전 총련 요꼬하마조 선초급학교에서 력사의 그날을 되새기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이 진행되였다

궐기모임에는 요꼬하마 조선초급학교 교직원들과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궐기모임에서는 지난 50년간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관철하기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위한 나날에 이룩된 자랑

찬 성과들이 소개되였다. 특히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은 남다른 자랑을 안고있는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를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문예활동과 체육활동에서 도 으뜸가는 자랑많은 학

위한 《100일간혁신운동》

교로 꾸러나갈것을 결의하 고 뜻깊은 올해를 민족교 육의 개화기를 열어나가는 결정적인 해로 장식하기

을 힘있게 벌린데 대하여

이 기간 학교 소년단에 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모든 학생들이 당시 조국 을 방문한 학생들이 지 은 노래 《조국을 떠나며 부르는 노래》에 대한 보 급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조 국을 방문하였던 동포들과 의 뜻깊은 상봉모임도 조 직하였다.

수령님을 모시는 영광의

대회에 그들을 꼭 참가시

켜야겠다고 하시였다. 그러

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방문기일을 연장하는것

은 어려울것이라고, 대회

날자를 앞당기자고, 우리

가 좀 수고를 하더라도 총

련교육일군들이 대회에 참

가해서 수령님의 가르치심

을 직접 받게 하고 조국

경험도 듣게 하여주자고.

대회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에 다 참가하

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대회를 앞당겨 열

도록 하자고 뜨겁게 교시

그리고 관계부문 일군

들을 찾으시여 몸소 필요

의

하시였다.

토로하였다.

교육일군들의 우수한

한 《조국사랑발표모임》도 진행되였는데 참가자들은 조국으로부터 받아안은 사 랑과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후대교육을 책임진 교육자 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궐기모임은 영원히 잊 을수 없는 그날의 영광 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 가려는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최 진 옥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품에 서 참된 조국과 음악의 길을 윤이상선생은 생의 말년까지 민족을 위한 애국 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갔다.

어주시였다.

주체79(1990)년 10월 어느 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윤이 상선생을 만나주시고 그가 건강이 좋지 못한데도 범민 족통일음악회를 발기하고 그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음 악회가 큰 성과를 거둘수 있 도록 적극 힘쓴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그의 수고를 높이 치하해주

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선생을 위하여 오찬을 베푸

시였다. 오찬석상에서 그이께서는 윤이상선생은 우리 민족이 아끼는 재간둥이이며 선생처 럼 예술분야에서 귀한 사람 이 없다고 하시면서 건강관 리를 잘하여 민족을 위하여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하시였다.

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꼭 보 답하리라 마음속으로 몇번이 고 되뇌이였다.

선생은 그 맹세를 지켜 조 국과 민족을 위한 음악작품 창작에 자기의 심혼을 다 바 치였다.

선생의 이러한 애국활동 을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크나 큰 믿음과 사랑을 거듭 베풀어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늘 선생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 을 돌리시고 보약까지 보내 주시였을뿐 아니라 그들부부

1976년 8월 18일 오전.

갑자기 미군경비장교를 비

롯한 10여명의 인원들이 대

형화물차와 찦차를 몰고와

쌍방의 합의없이 일방적으

로 처리할수 없는 판문점공

동경비구역안의 나무를 제

당시 근무중이던 조선인

민군 경비인원들이 비법행위

를 당장 그만둘것을 요구하

그러나 미군것들과 그들

을 따라온 떨거지들은 흉기

를 휘두르며 집단적으로 달

러들어 폭행을 가하기 시작

하였다. 조선인민군 경비인

원들은 적들의 분별없는 도

발에 대처하여 부득불 단호

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지 않

을수 없게 되였다. 경비인

원들은 적들이 던진 도끼를

집어 도로 놈들에게 던지면

멋대로 찍기 시작했다.

였다.

가 조국에 와서 마음편히 생 활할수 있도록 대동강반의 경치좋은 곳에 고급주택도 마련하여주시였다. 또 선생 의 생일 75돐을 맞으며 평 양의 중심부에 현대적인 건 축미를 자랑하는 윤이상음악

《광주여 영원히》를 록 음으로 들어주시고 특색있는 민족적선률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음악속에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바라는 작곡가의 사상감정이 잘 반영되였다고 하시면서 음악회를 성과적으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았기에 윤이상선생은 생의 마지막순 간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의로운 활동에 자기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칠수 있었다. 선생은 자기가 고질병으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겨례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로 (4)

당을 새로 건설하도록 하시 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83(1994)년 어느 봄날에 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풍 치수려한 묘향산에서 조국을 방문한 윤이상선생을 만나 주시였다.

도 윤이상선생에게 크나큰 있는 평론가들의 관평도 신 돌려주시였다.

1982년 평양에서 제1차 윤 이상음악회가 진행될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히

윤이상선생이 작곡한 교향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맡기시고 독특한 곡상요구에

민족적정서와 색채가 짙은

진 초기의 음악들을 찾 아주시여 제2차 윤이상 음악회에서 다시 빛을 보게 해주시였다. 노래 《내 나라 제일 로 좋아》를 가지고 다

오래 살지 못할것이라는것을 예감한 속에서도 1994년에

1995년 11월 4일. 윤이상선생은 파란많은

비보를 받으시고 그 누구보다 도 가슴아파하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신문들에 그의

반신상도 세우도록 뜨거운 사랑을 베푸시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주체65(1976)년 12월 어

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는 공화국을 방문한 일본교

직원조합대표단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판문점사건은 미

국대통령이 얼마나 너절하

게 행동하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었다고, 미국이라는

큰 나라 대통령이 남조선강

점을 정당화하고 대통령선거

에서 더 많은 지지표를 긁

어모으기 위해 군사분계선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백양

을 직접 지휘하였다는것은

력사에 없는 너절한 일이라

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수치

스러운것도 모르는 철면피한

미국은 언제나 공화국과

본사기자 리연선

자들이라고 하시였다.

배를 면치 못하였다.

멸적의 기상에 질겁한 미국 의 대결에서 수치스러운 패

나무를 찍기 위한 《작전》

이렇게 되여 그때 전국

교육일군대회는 예정보다 앞당겨 열리게 되였으며 출발날자가 얼마 남지 않 았던 총련교육일군들이 대 회에 참가하게 되였다. 그 때 대표단성원들뿐 아니라 이 희한한 소식을 전해들 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 들은 또 얼마나 크나큰 감

그런데 또다시 총련일군 들의 자그마한 소망마저 헤아리시여 그들을 영광 의 자리에 내세워주시였으 니 진정 그것은 시작은 있 어도 끝이 없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의

또한 교직동분회가 조직

윤이상선생을 추모하는 49제 (불교식제사)때에는 도이췰란드 에 조의대표단을 파견해주시고 제상에 놓을 제물까지 보내주 시였으며 선생의 미망인이 이 국땅에서 적적하게 지내고있는 데 대해 걱정하시여 조국에 와 서 장기간 건강을 돌볼데 대한 은정도 돌려주시였다.

윤이상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도 조국에서는 윤이상음악회가 성황리에 진

행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제32차 윤이상음악회때에 음악회가 뜻깊고 성대히 진 행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 풀어주시였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품에 서 윤이상선생은 오늘도 겨레 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로 사 람들의 기억속에 살아있다.

본사기자

공화국창건 74 돐에 즈음하여

경축행사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에 즈음하여 총련에서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 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축하문채택모임이 7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 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 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제 1부의장 겸 조직국장, 남승 우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조일연부의장, 송근학부의장 겸 교육국장, 서충언부의장 겸 국제통일국 장, 리명유 총련중앙감사위원 회 위원장, 국장들, 중앙일 군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재일본조선인총 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축하 무을 박구호제1부의장 겸 조 직국장이 정중히 랑독하였다. 축하문은 전체 참가자들 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

되였다. 공화국창건 74돐에 즈음

한 국기게양식도 총련의 각 급 기관과 조선대학교, 각 지 초중고급학교들에서 진행 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창건 74돐경축 중앙강 연회가 조선회관에서 진행되 였다

강연회에서는 록화강연편 집물 《덕과 정의 힘으로 전 진하는 우리 조국》이 상영 되였다

편집물은 우리 조국의 력 사가 수령과 인민이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치고 온 나라 인민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의 만난시련을 헤쳐온 덕 과 정의 력사이라는데 대하 여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편집물은 적대세력들의 발 악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 첩 앞을 가로막아나섰던 고난 의 행군, 강행군시기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억세게 이어가신 선군의 길이 인민 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과 뜨거운 정으로 일관된 성스 러운 길이였다는것과 우리 조 국이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

는것을 미풍으로 여기고 서 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 의위력으로 힘차게 전진하여 온데 대하여 전하였다.

편집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에 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정은 오 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더 활짝 꽃퍼나고있 는데 대해서와 엄청난 자연 의 대재앙을 당한 인민들에 게 삶의 보금자리를 안겨주 시고 이 세상 그 누가 가질 수 없고 흉내조차 낼수 없는 우리 공화국의 제일가는 공 산주의미덕과 미풍이 간고한 방역대전에서 더 높이 발양 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생 동한 력사적화폭들로 펼쳐 보였다.

편집물을 시청하면서 참가자 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각계 각층 동포군증의 무궁한 힘 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 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 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결의 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재중동포단체들 경축행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 건 74돐에 즈음하여 재중동 포단체들이 경축행사들을 진 행하였다.

중국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 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 정되였다.

중국주재 공화국 대사관 과 심양, 단동에 있는 공화 국 대표부들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 영상작품에 재중조선경제인 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 협회, 료녕지구협회 단동시지 부를 비롯한 재중동포단체들 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채택모임이 8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회의

실에서 진행되였다. 공화국창건 74돐경축 재중

9일 심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인총련합회 좌담회도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 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총련 합회 일군들과 재중조선경제 인련합회 성원들, 료녕지구협 회 심양시지부 성원들이 참 가하였다.

발언자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창건 74돐을 뜻깊 게 맞이한 이 시각 재중동포 들은 창공높이 휘날리는 람 홍색공화국기를 숭엄히 우리 르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경애하는

를 다지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세 계가 우러르는 강대한 나라. 인민의 리상사회를 일떠세우 실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건 국의 초행길과 불비쏟아지는 전선길, 전후복구건설의 험난 한 길을 헤치시며 부강조국건 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

였다고 그들은 칭송하였다.

또한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만방

에 빛내여나갈 철석의 맹세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이 백방으로 다져지고 새로운 혁 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튼튼 한 토대가 마련된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사 회주의국가건설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재중조선 인총련합회 성원들은 그 어 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와 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 을 굳게 믿고 따르며 언제 나 조국인민들과 한마음한뜻 이 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 람같이 펼쳐나설것이라고 강 조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 구협회와 연변지구협회, 목 단강지구협회 등에서도 경 축모임, 영화감상회를 비롯 한 다양한 경축행사들이 진 행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시민단체들 반미반전투쟁을 활발히

얼마전 남조선의 서울 광 화문광장에서 미국의 북침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미 국 전쟁, 반인륜범죄 국제민 간법정》 공동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이어 여러 시민단체 대표들 의 발언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강점으로 산생된 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장차 외국군대의 주둔없 는 자주적인 력사를 개척하 고 한반도평화를 실현하기 위 한 로정에 힘을 실어 70여년 간에 걸치는 미국의 지배를 끝장내기 위한 중단없는 더

큰 싸움을 이어갈것》》을 다 짂하였다.

발언자들은 미국대사관앞 1인시위를 9월 8일로 마감하 고 《미국은 들어라 화요시 민행동》과 《월례 반미자주 대회》에 합류하여 반미투쟁 을 더욱 활성화해나갈 결의 들을 표명하였다.

알려진데 의하면 이 단체 들은 2020년 9월 8일 《미 국 전쟁, 반인륜범죄 국제

민간법정》이 개정된 때로부 터 지금까지 470여차에 걸 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반미 반전평화투쟁을 활발히 벌

본사기자



《세계화》 바람에 말살되여가는 민족음악

매개 민족이 자기의 고유 한 생활감정과 민족적정서를 반영하여 창조한 음악은 력 사적으로 형성되고 세련공고 화되면서 고유한 민족적전통 을 이룬다.

해당 민족에게 고유한 음 악을 민족음악이라고 한다. 민족음악에서 그 민족의 심리정서적특질과 생활감정 을 가장 풍부하게 집중적 으로 반영하고있는 대표적 인 음악은 인민대중자신이 창작하고 즐겨 불러온 민요

우리 민족음악의 대표적인 민요로는 《아리랑》을 들수 있다

이다

공화국에서는 민족성을 살 리면서도 시대적발전과 현대 적미감에 맞게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켜나감으로 써 음악분야에서도 민족전통 을 고수해나가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세 계화》바람속에 우리 민족고 유의 선률과 창법이 사라지 고 민족음악의 전통이 여지 없이 파괴되고있다.

1990년대이후 남, 녀청소년 중창단이 미국과 서방의 썩 어빠진 문화를 어지럽게 조 합하여 만든 《대중음악》 이라는것만 보아도 광란적 이고 렵기적인 춤동작과 반 복적인 리듬에 맞추어 가사 를 읊듯이 하는 음악으로서 관람자들의 시각, 청각을 자 극한다.

그 《대중음악》은 혼잡스 럽고 어지러우며 광란적인것 으로 하여 각이한 년령층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있다. 가사만 보아도 빠른 노래 말, 외래어가 섞인 잡탕말인

데다 강한 리듬에 무음조에 가까운 음률에 따라하는것 으로 하여 민족음악, 서정적 인 음악에 익숙된 조선사람 들은 도저히 리해하지 못한 다고 한다.

광란적인 그 《대중음악》 이라는것으로 하여 민족전 통음악은 《지루하고 고리 타분한 음악》으로 치부되 고있다. 또한 전통음악들 《대중음악》형식으 ユ 로 개조한다고 하면서 민족 악기로 전통음악과 서양음악 을 마구 결합한 얼치기음악 을 내놓아 민족유악의 고유 한 전통이 여지없이 말살되

《아리랑》, 《쾌지나 칭칭 나네》, 《옹혜야》와 같은 민요, 민족음악에 《쟈즈》 《랩》과 같은 광란적인 리 듬, 음률을 마구 뒤섞어놓 는가 하면 서양음률과 장단 에 창소리를 몇마디 섞어놓 고 《남조선식쟈즈》라고 광 고해대는 형편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속 에서는 대중음악이 서양식 에 지나치게 편중되여 다양 성과 음악의 본태를 잃고있 다, 민족음악이 《세계화》 바람에 말살되여가고있다. 민족성이 파괴되고 사람들 에게 전통음악에 대한 잘못 된 개념을 심어주고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

고있다.

김 광 복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뭉개버리며 (4)

서 결사적으로 대항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적들은

미리 대기시켜놓았던 30여명

의 불한당들을 더 증강하여

나섰다. 이로 말미암아 쌍

방사이에는 격투가 벌어져

량쪽에 다 부상자들이 발생

하였다. 이것이 일명 8.18사

건이라고도 불리우는 세상

을 들었다놓은 판문점사건

이 사건은 미국이 조선에

서 불집을 일으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꾸며낸 도발행위

미국이 판문점사건을 얼

마나 계획적으로 조작하였

는가 하는것은 산등성이에

미리 촬영기들을 설치해놓

고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

까지 전 과정을 다 찍은 사

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사건이 터

환경설사건으로 뜨나시

이다.

였다

그이께서는 관록있는 국립 교향악단에 그 작품연주를

따르는 수십종의 타악기를 일 식으로 마련하도록 긴급조치 를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연을 TV로 방영하고 이름 문에 내도록 해주시였다.

선생의 음악을 발굴소개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도록 하 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생 의 기억에서조차 희미해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만들 때에도 그를 영화의 주인공으

교향시곡 《화염속의 천사》 를 작곡하였다.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크게 내게 하고 거기 에 윤이상선생의 생애는 조국 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한생 이였다는것을 강조하게 하시 였다. 또한 윤이상선생을 추 모하는 행사를 크게 조직하 도록 하시고 화화도 보내주 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 생의 공적을 다시금 높이 평 가하시여 윤이상음악당에 윤 이상박물관을 꾸리고 그의

로 내세워주시였다. 이렇듯 평생을 두고 도 갚지 못할 위대한

并引导

지기를 기다린듯 남조선강

점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으

로 하여금 진지를 차지하고

완전전투태세에 들어가도록

하는 한편 배상금을 내라

느니, 사죄하라느니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미국의 이러한 엄중한 군

사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체 인민군부대들과 로농

적위대(당시), 붉은청년근

위대원들이 전투태세에 들

어갈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

아안고 전당, 전군, 전민이 조

국수호전에 산악같이 일떠섰

다. 공화국의 인민과 군대의

은 종당에 공화국앞에 머리

를 숙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시였다.

공화국을 위협공갈하였다.

자기의 인생길에서 대해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우리 나라의 옛 동화에는 교훈적인 련한 억제수단, 절대병기이다. 내용들이 참으로 많다.

그중에는 마음씨착한 토끼형제가 자 기들을 잡아먹으려는 음흉한 승냥이의 달콤한 꼬임수에 넘어가 사냥총에서 총 알을 모두 뽑은탓에 잡혀먹힐번 했다 는 동화이야기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자체방어와 생존을 위 한 수단만은 소유해야 한다는 진리를 밝힌 이야기이다.

70여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외세의 끊 임없는 폭제와 침략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생존권과 발전권의 담보를 백배, 천배로 다지는 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며 자주권행사이다. 지난날 자기 를 지킬 힘이 없어 일제의 식민지노예 살이를 강요당해야 했던 수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세기를 이어 핵전 쟁위협을 가하면서 호시탐탐 침략의 기 회만을 노리고있는 미제의 야욕을 짓 뭉개버리기 위해 허리띠를 조이며 무적 의 절대병기를 마련한 우리 인민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우리 민족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고 살수 있게 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것은 공화국정 부의 자주적결단과 견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의지에 대한 더욱 뚜렷한 과

우리의 핵무기는 건국초기부터 세계 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보 유국인 미국으로부터 항시적인 핵위협 과 공갈을 받아온 우리 공화국이 자기 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 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수 십년간의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

문제는 이러한 초보적인 리치도 모르 고 대세도 분간 못하는 천하머저리들 이 이 지맥의 남쪽강토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것이다.

최근에도 윤석열역적패당은 허황하 기 그지없는 《담대한 구상》이라는것 을 지꿎게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핵무기 를 포기하면 식량과 의료품을 비롯한 경제지원을 약속한다느니,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경제제재》를 완화시키 기 위해 노력하겠다느니 하는 허튼 나 발을 계속 불어대고있다.

수천만 우리 민족의 안전과 번영, 천만 년미래를 담보하는 정의의 보검을 몇t의 쌀알이나 물건짝들과 바꿔보겠다는 천치 들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 겪고있는 곤난을 잠시라도 면해 보자고, 에돌아가자고 나라의 생존권 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온 세계가 공인하고

우리 인민은 미국놈들의 상투적인 설교와 궤변과 제재압박, 군사적위협을 못이겨 잘못된 선택으로 비참한 말로 를 면치 못한 20세기, 21세기의 수많은 비극적사건들을 너무도 잘 알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똑바로 알아야

우리의 정당한 선택을 두고 다른 이 외의 견해가 절대로 있을수 없다.

《하지만》이라는 말은 더우기나 통 할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우리의 국체인 핵 무기를 놓고 더이상 요설을 부리지 말 고 함구하고있는것이 유일한 상책으로 될것이다.

导导闻智豪倒到 哥唧酸

북침야망에 들뜬 윤석열역 적패당이 물인지 불인지 모 르고 미쳐날뛰고있다.

최근 남조선군부호전광들 이 윤석열역도의 집권 5년 간 추진할 군사력건설계획 인 《2023-2027 국방중기계 획》 작성놀음을 벌리고있는것 이 이를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유 석열역적패당의 《핵심국방정 책》이라고 하는 이른바 《국 방혁신 4.0》을 먼저 완성하 고 그에 토대하여 《국방중

고있다. 이른바 《국방혁신 4.0》은 《국방연구개발》과 전력증강체계재설계, 《국방 과학기술기반확장》, 새 군사 전략과 작전개념의 확정, 군 구조와 국방운영의 최적화, 핵심첨단전력확보 등으로 구 성된 5개 분야 16개 종목의 목표로 세분화되여있다고 한 다. 특히 공화국을 《선제타 격》하기 위한 《한국형3축체 계》구축을 기본내용으로 하

남조선군부호전 광 들의





칠칠야밤 《룡와대》골방 에서 게슴츠레해진 거적눈을 꺼벅대며 미국산위스키(Jack Daniel)병을 기울이기를 그 목소리가 귀전을 때린다. 카랑카랑하면서도 독기가

기분이 울적해질 때면 항 상 《재크 다니엘》 술병을

꺼내드는 역도이다. 술병에 찍힌 《USA》라 는 글자에 눈길을 박느라면 내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열 기가 북받치면서 마음의 안 정을 찾군 하는것이 이제는

습관처럼 되여버린것이다. 지금 역도를 고뇌의 심연 에 처넣은것은 얼마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직접

서명한 《인플레감축 법》이다. 11월중간선거를 앞 두고 미국내의 심각한 통화팽창을 감소시켜 지지

표를 한개라도 더 그러모으 은 간다.

전기자동차기업들에 막대한

려는 고심비낀 계책에 공감 문제는 그것이 남조선의

생각해볼수록 어이없는

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률 가. 귀측의 마중이 없은탓 다며 보고서를 들고왔었다. 이 정겹게 떠오른다. 라고 이죽거리는 바이든이 의 3중고로 아우성치는 민 에 우리 미국인들끼리 얼마 그때 호언장담했던 생각 (그래그래, 바이든이 내 환각마냥 얼른거리고 《미]: 《대통령》감투를 쓴지 이제사 몇달 에 의해 파탄될줄이야, 그것 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 만 믿으라고 큰소리를 치며 줄것이다.) 뒤통수를 얻어맞은것이다. 되였다. 이 환대를 절대로 여 돌려보냈었다.

합동대표단》을 무어 떠나보 할 기회가 있을것이라며 꼭 의양양해질 리유가 충분하 뭔가 오해가 있었을것이라 우에서 길게 드리워진 줄무

도대체 무엇때문에?!… 도리하는데 문득 누군가의

서려있는 목소리… 그래 펠로씨다. 여든고 령의 흡사 귀신같은 그의

눈초리가 사정없이 육박해 식은땀이 내돋는 속에 지 난 8월초 서울에 왔던 미하

화가 떠오른다. 그때 고패치는 타산때문 에 펠로씨를 외면한 대가를

수십년동안 미국정계에서

《철의 녀인》, 《마녀》로

악명높은 로회한 펠로씨가

주름진 얼굴에 뱀눈같이 차

가운 빛을 내뿜으며 뭐라고

톡톡히 치르었다.

원 의장 펠로씨와의 전화통

물론 펠로씨를 환대하지 술잔도 돌리고 럭도 도리 않은것은 본의아닌 대실수 이다. 그렇다고 바이든의 눈 밖에 날 일은 없을것이라고 자체위안해왔는데…

> 결국 펠로씨가 그토록 강 조했던 《보답》이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철퇴였단 말 인가.

허나 제가 아무리 미국의 권력순위 세번째라 해도 대 통령을 제칠수는 없다.

아무렴?!… 하며 버릇처 럼 도리머리를 젓는데 이번 에는 김규현의 해사한 얼굴 이 다가든다. 우리도 일본

처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고 손짓까지 해가며 설명하

려들던 정보원 원장의 모습

이 얼른거리는것은 무엇때

첫 여름휴가를 보내는 다 과 관련하여 일본이 미국과 못했을것이다.)

문인가.

속빈 강정이나 마찬가지 고 〈유감〉이라니?》, 《바 인 경제형편으로 돈주머니 에 공기만 차있었지만 미국 에만은…

내리덮인 눈거죽안에서 흑

막속의 비밀이 되새겨진다. (족쇄를 차고있는 삼성의 리재용에게 《8.15특별사 면》대상에 넣어줄테니 대미 투자를 하라고 회유한걸 아 마 귀신도 모를것이다. 검 찰때 쥐고있던 부정부패자 료를 가지고 SK도 미국에 거금을 투자하게 협박했지.

특히 현대차그룹의 목줄을

조여 바이든의 정치적기반

인 죠지아주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희사하기로 한것은

정말 신통한 묘안이였어. …

प्रवास शहा

이든에게 큼직한 〈선물〉 주 고 뺨맞은 격》, 《하와이 까지 날아간 안보실장에게 (집에 돌아가서 인플레감 축법을 잘 숙독해보라.〉고 조롱한 백악관 안보보좌 관》, 《알고보니 남조선 에 대한 대만의 7조원 반도 체투자마저 가로챈 미국》… 정계, 재계, 언론계의 비 난과 야유조소로 서울장안 이 소란해진것은 얼마후였다. (미국에 모든것을 바쳤는

히려 제편에서 〈뜻밖〉이

데 왜? 어째서?) 치미는 분기를 누를 길 없어 한참이나 씩 씩거리던 윤석열역도는 눈앞의 술상을 두팔로 와락 쓸어버렸다.

그 서슬에 그토록 애용 하던 미국산위스키병이 휘 뿌려져 지난 5월 바이든이 남조선방문기념으로 선물했 어느 누가 미국을 이처럼 떠 던 《모든 책임은 나에게 한달전 미의회에서 추진 섬길수 있단 말인가. 하내비 있다》 는 문구가 새겨진 탁 상명패에 부딪쳐 산산쪼각 ▮

첫 여름휴가를 보내는 다 과 관련하여 일본이 미국과 못했을것이다.) 났다. 망한 속에서도 시간을 내 의 막후교섭을 적극적으로 왜선지 두손까지 내들며 《그래, 모든 책임은 내 《대통령》자리를 차지한 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던 벌리고있다는 정보를 입수했 《쌩큐》를 련발하던 바이든 가 아니라 너에게 있어.》 📘

부랴부랴 미국에 《정부 잊지 않고 앞으로 꼭 보답 그럴만도 했다. 그렇게 득 가 아직 뻐근하기는 해도 고개를 떨군 역도의 머리 】 합동대표단》을 무어 떠나보 할 기회가 있을것이라며 꼭 의양양해질 리유가 추부하 뭐가 이레이 지하기 수에서 지하기 수에서 되고 있다.

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리 고 벌리는 무모한 전력증강 책동으로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북침전쟁 도화선에 한사코 불을 달려

발로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군부호 전광들을 내세워 도발적인 《북선제타격론》을 내들고 《북주적론》을 부활시켰다 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는 극악한 동족대결흉심의

이 《선제타격론》과 《주 적론》에 립각하여 윤석열역 적패당은 북침전쟁시연회인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단 독군사훈련들을 련속 벌려놓 는 한편 막대한 돈을 뿌려 가며 무력증강에 발광적으로

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이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국방 않고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로 위이다. 미국상전의 배를 불리워주는 대가로 더러운 명줄을 유지 해보려는 친미역적들의 매국 적망동이기도 하다.

추가로 끌어들이는데만도 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30억 7 300여만US\$의 혈세

가 탕진된다고 한다.

역적패당이 전력증강책동 북침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으로 북침야욕을 실현해보려 하는것은 도저히 이루어질수 없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미국의 대포밥, 식민지하 수인에 불과한 역적패당이 증기계획》을 통해 미국산무 상전도 무서워 떠는 절대적 기들과 군사장비들을 마구 힘을 지닌 공화국을 어째보 끌어들이려 하는것은 아우 려 하는것은 가당치도 않은 성치는 민생은 아랑굣하지 것이며 괴멸을 자청하는 행

뛰여야 벼룩이고 날아야

하루살이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저들의 무분별한 미치팡이놀음이 어 역적패당이 미국산 스텔스 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는가 전투기 《F-35A》 20대를 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

고 렴치없이 행동 하는것 혹은 쓸데 없는 일에 지나치 게 참견하는것을 子 가리켜 오지랖이

남조선의 윤석열 역적패당이 꼭 그 꼴이다. 얼마전 역적패당

넓다고 한다.

제 처지도 모르

은 《2022 서울안 보대화》라는 막간 극을 펼쳐놓고 내 외의 《전문가》라 고 하는 어중이떠 중이들을 등장시 켜 그 무슨 《북 비핵화》를 론의하 였다고 한다.

상대도, 제 처지 도 모르고 설치는 푼수없는짓, 초보 적인 분별력도 없 는 해괴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핵은 공화국의 존엄이고

국위이며 국체이다. 더우기 공화국은 최고인민 회의 법령을 통하여 책임적 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 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 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 가 아니라 반공화국, 대륙 설을 지향한다고 명백히 밝 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부 러진 노루 한곬에 모인다고 떠하리라는것은 더 론할 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질겁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치않게 《북비핵화》를 쑥 덕이였다니 어리석은 모의판 활한 속내를 간파할수나 있 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더우기 미국의 하수인인 윤석열역적패당이 주제넘게 최강의 핵보유국을 상대로 막대질해보겠다는것이야말로 썩은 닭알로 청바위를 깨여 보려는 허황한 망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공화국은 역 적패당이 일본에 날아가 상 전들과 벌린 《북핵수석대표 협의회》라는데서 동족을 걸 고들며 《3자안보협력강화》, 《심각한 우려》, 《단호한 대응》 등을 떠든데 대해 똑 똑히 기억하고있다.

빠른 시일안에 조작하는것으 로 《한미동맹의 세계화》를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흉심

의 발로이다. 미국이 윤석열역적패당이 나 섬나라것들의 등을 두드 는것이 좋을것이다.

침략정책의 돌격대, 대포밥 이 필요하기때문이다. 그 총 알받이, 대포밥의 운명이 어 지도 없다. 하기야 친미사대 에 화장한 유석열역도나 그 패거리들이니 상전의 이런 교

겠는가. 윤석열역적패당이 벌려놓 은 《2022년 서울안보대화》 라는것은 빛갈도 보이기 전 의 《대북정책》, 동족대결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와 공조를 구걸해보려는 정 치막간극외에 다른 아무것

도 아니다. 특히 그것은 미국과의 북 침전쟁연습강화로 조선반도 와 지역정세를 더욱 격화시 키는 범죄적망동이다.

온 겨레는 윤석열역적패당 의 사대매국적이고 동족대결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적인 망동들을 낱낱이 기록 해두고있다.

> 역적패당은 제 주제도, 푼 수도 모르고 오지랖 넓게 놀 아대다가는 어떤 비참한 말 로가 차례지겠는지를 숙고하

꼬리 나 자른다고

유 현 의

어쩌면 그리도 신통할가 급하면 서슴없이 꼬리를 잘라 위험을 모면하는 도마뱀에 조금도 짝지지 않을 《룡와대》의 주인이로다

심을 다독여 인기를 올려보 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몰랐 이 난다. 이제 보라, 뛰는 가 기울인 지성과 공헌을 국에 아부한것도 너고 배 및 민생은 낭떠러지 지지률도 최악 국에 아부한것도 너고 배 ┃ 민생은 낭떠러지 지지률도 최악 신당한것도 너니 벌을 받 ┃ 꿰진 자루에서 보리알 새듯 아야 할것도 너다.》는 분 줄줄이 쏟아져나오는 부정부패 라고난 무지무능으로 받는 배척일진대 다하 민심의 목소리도 들 ┃ 구하기 구해더가보다 려던노릇이 다름아닌 미국 다, 품위있고 성의있는 의전 놈우에 나는 놈이 있어, 나 생각해서라도 체면만은 봐 신당한것도 너니 벌을 받 🚺 : 꿰진 자루에서 보리알 새듯 도 취임 100일이 되는 날에 한 태도를 충분히 잘 알게 머뭇거리는 그를 쫓다싶이하 《인플레감축법》이라는 노한 민심의 목소리도 들 ▮: 급하긴 급했던가보다

 《인적쇄신》 그럴사한 명분에
 도마뱀은 꼬리잘라 위기 모면해도

 《대통령실》 개편이란 간판아래
 역도는 민심의 판결 피할수 없거니

 집싸들고 쫓겨난자 몇이고
 온갖 오그랑수 아무리 부려봐도

무려 500억US\$가 훨씬 합동대표단〉에 미국이 오 김 춘 경 리는 저마다 도살장에 와있는 기분이라 《하루빨리 대통령감투 내려놓으라!》

박작도 제대로 못자겠다 아우성이네

제살궁리에 혈안이 된 주인에게 가차없이 잘리운 불행한 《꼬리》 도마뱀같은 윤석열 보며 터치는 탄식 이러자고 따라다녔던가 배신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

《꼬리》나 자른다고 기울어진 민심 달랠수 있으랴

져지고있다.

알려진것처 럼 지금 윤석 열역도는 《국 민의힘》과 악

질보수단체, 검찰, 경찰것들 름없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 지금 여야가 벌리는 치렬 선거때부터 시작되여 끝나지 을 내몰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해나서고있다. 한 《전쟁》의 불길은 《국 않는 두 패당의 싸움에 신물 인 리재명과 그의 처의 부패 더불어민주당은 당안에 회》로 번져지고있다. 이 난 민심이 이놈이든 저놈 의혹사건 10여건에 대한 수사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 더불어민주당은 머리수를 이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

에 총출동한것이다.

신임대표로 선출됨으로써 지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역도 주도권을 쥐려 하고 《국 것은 애매한 민생뿐이 아니 난 《대통령》 선거때에 형성 의 죄행을 수집하는 《제보 민의힘》 패들은 어떻게 하나 던가.

히 전쟁을 선포한것이나 다 하고있다.

전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에 대한 소환조사를 결정 에 고발하는것으로 맞불을 희득검법》에 대해 응답자의 불과 불이 오가는 참혹한 싸 한데 이어 《대통령》선거당 놓고있다. 62.7%가 필요하다고 대답하 움판을 현상할것이다.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 였으며 경찰이 김건희의 허위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는 고 허위사실을 류포하였다는 은 사회전반이 윤석열지지 경력을 무혐의로 처분한데 대 상대를 물어메치기 위한 여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재판에 파와 리재명지지파로 갈라져 해서는 64.7%가 불공정한 처 📗 《너 죽든 나 죽든 해보 아예 당을 장악하여 친윤 리고있다. 야간의 정치적대결이 도수를 정식 회부하였다. 전쟁에 휘말려들고있다, 진보 리였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지.》 석열계를 내몰아야 한다고 한편 《국민의힘》내에서 전문가들, 각계층이 《벼 넘어 그야말로 《전쟁》이라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정 와 보수의 대결양상이 더욱 한편 응답자의 52.3%가 야 📗 《국민의힘》의 새 비상 들고일어났지만 그러거나 새 원내대표선출문제를 둘 랑끝 대치로 치닫는 파벌싸 불리울 정도로 치렬하게 번 치보복이고 야당탄압이며 특 짙어지고있다고 우려를 표시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하고있는 《인플레감축법》 라도 이렇게까지는 효도를

정쟁이 아니라 《전쟁》이다 다고 한다. 이것은 지

에 달라붙고있다. 원회》와 《대통령실의혹진상 믿고 저들에 대한 사법당국 고 빨리 현재의 정치적혼란이 한마디로 《리재명죽이기》 규명단》을 구성하고 윤석열 의 수사를 저지시키는 한편 종식되기를 바라고있다는것을 역도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국정》운 보여주고있다.

얼마전에도 리준석은 새 법원이 리준석에게 손을 로 선출해야 한다고 하면 망하는 집안에 싸움이 잦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오기 들어주면 새 비상대책위원 서 친윤석열파들을 강하게 다는 말이 있다. 위한 친윤석열파의 당헌장 회도 단명을 면치 못하게 견제하고있다. 되었던 윤석열역도 대 리재명 쎈터》까지 운영하겠다고 으 야당대표의 부정부패의혹을 갈수록 악화되는 민생은 과 규약개정놀음을 《타인 되고 그 반대이면 리준석은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은 안중에도 없이 누가 누구 의 대결구도가 다시 이루어진 름장을 놓으며 강경한 태도 물고늘어져 심화되는 통치위 외면하고 서로가 상대를 죽 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행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하게 는 약육강식의 법칙을 생리 를 하는 치렬한 권력싸움을 데도 있지만 그가 저들의 현 로 나오고있다. 기를 수습하고 민심의 눈초 이기에만 날뛰는 여야간의 피 위》, 《반헌법적인 쿠데타 된다. 로 하는 보수패당이 벌리는 벌리면서 《국민의힘》패거리

얼마전에도 윤석열역적패 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발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결 서 저주를 보내고있다. 그에 합세하여 리준석의 의원들과 중진의원들까지 말 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 하고있다. 당은 검찰과 경찰을 내세워 의하고 역도를 2차례나 검찰 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 권 순 남 축근들속에서는 이 기회에 려들어 서로 아귀다툼을 벌 생결단이다.

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의 헌 옷돌 메꾸는 식이다.》고 하 《추대》의 방법으로 내세 있겠는가. 장과 규약을 개정하여 비상 면서 리준석패들이 들고일 워야 한다고 주장하고있 당권쟁탈을 위한 싸움, 세 대책위원회를 다시 내오고 어나고 특히 리준석은 또다 고 비윤석열파는 권력독점 력권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는 반면에 리준석과 그 패거리 시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부 현상을 없애야 한다, 《대 《국민의힘》것들의 추태는 들은 그것을 저지시키려고 정하는 문건을 법에 제출하 통령》과 거리를 둘수 있 역적당의 붕괴가 시간문제라 악을 써대고있다. 였다.

는 인물을 선거의 방법으 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언론들과 대책위원회문제를 둘러싸 말거나 친윤석열파는 자기 러싸고 10여명의 권력야심 움》, 《당혼란수습까지는 첩 지지해나서고있다는 여론조사 고 벌어지는 친윤석열파와 파 사람을 우두머리로 하 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 첩산중》, 《윤석열이든, 리 결과도 나왔 전 당대표 리준석파사이의 는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내 기 위한 치렬한 암투를 벌 준석이든 둘중 누가 하나 죽다고 한다. 정면대결이 바로 이런 상 왔다 리고있다 어야 끝날 싸움이다》. 《〈국 정면대결이 바로 이런 상 왔다. 리고있다. 이야 끝날 싸움이다.》, 《〈국 황이다. 이를 두고 《반민주적인 특히 친윤석열파는 전 비 민의힘》의 붕괴는 피할수 없 당내의 친윤석열파는 법원 행태이다.》, 《아래돌 뽑아 상대 책위원회 위원장을 을것이다.》라고 비난조소하고

날로 악화되는 경제와 민생 통치와 재집권에 가장 위험한 특히 윤석열역도의 녀편네 리를 야당에게로 돌려놓으려 터지는 《전쟁》에 남조선민 행위》라고 하면서 공격해나 두 파벌간의 사생결단의 지금의 추태를 보면 그야말 들은 운명의 종착점인 파멸 정치적적수로 등장한데 있다. 김건희의 부정부패의혹을 밝 하고있다. 심도 극도의 환멸을 느끼면 | 섰다. 싸움에 《국민의힘》의 신진 로 체질상 그대로 둘중 누군 의 낭떠러지로 거침없이 질주

조 성 국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는가. 하다. 전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에 대한 소환조사를 결정 에 고발하는것으로 맞불을 희특검법》에 대해 응답자의

난 《대통령》

그것은 리재명이 제1야당의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영에 사사건진 제동을 걸어 어떤 전쟁에서든 녹아나는



뼈강화용건강식품 비타민D칼시움영양알

연구자료에 의하면 인 체활동에 필요한 비타 민D와 칼시움의 보충 은 음식물섭취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몸안에 비타민D나 칼 시움이 부족한 어린이 들은 구루병에 쉽게 걸 려 성장발육장애가 올 수 있으며 로인들의 경 우에는 뼈성김증, 뼈연 화중이 생기거나 약한 타격에도 뼈가 골절되 군 한다.

특히 페경기녀성들이 나 임신부, 애기어머니 들은 비타민D와 칼시움을 매 일 보충적으로 섭취하는것이

필수적이다. 공화국의 문수기능성식품 생산소에서 개발생산한 비타 민D칼시움영양알이 각종 뼈 질환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키크기에 도움을 주는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뼈강화용건강식품-비타민 D칼시움영양알은 동물성칼시 체내에서 이온화와 분

산을 촉진시키고 흡수률을

높일수 있게 가공하여 만든

천연건강식품이다.

문수기능성식품생산소

영양알에 들어있는 비타민 D와 칼시움성분은 호상협력 작용을 하면서 뼈밀도와 뼈 량을 증가시켜 뼈조직을 든 든하게 하여주는 동시에 뼈 의 변형이나 골절을 예방 및 치료하는 작용을 한다.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구루병 을 예방치료할수 있으며 중, 움과 비타민D를 기본원료로 로년기뼈성김증이나 골절의 예방치료, 임산부들의 건강회 복에도 특효가 있다고 한다.



아니라 닭고기에 비하여 몸 안에서의 소화흡수률이 좋으 므로 임신부, 늙은이, 체질 이 약한 사람들에게 보다 좋 은 식료품으로 된다.

그러므로 메추리를 일명 동 물인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메추리알은 닭알에 비해 단백질과 레시틴, 각종 비타 민, 광물질이 더 많이 함유 되여있다.

자료에 의하면 메추리알 한 알의 영양가는 닭알 3알과

그러므로 이 영양알을 정 상적으로 먹으면 어린이들의 본사기자

맞먹는다고 한다. 메추리고기나 알은 맛이 달고 성질이 온화하여 오장 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므 로 허약자와 빈혈, 결핵, 설 사 등 신진대사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먹으면 큰 효과를 볼수 있다.

본사기자

국 가 비 물 질 문 화 유 산

평안북도 태천군에서는 오 래전부터 옻나무에서 얻어낸 옻을 칠감으로 리용하여 쓸모 있는 공예품들을 만들고있다.

넓은잎작은키나무인 옻나 무는 공화국의 거의 모든 지 역에 퍼져있으며 특히 태천 군에서 집중적으로 자라고 있다.

태천지방의 옻은 특산물로 서 부드럽고 윤택이 나며 질 이 우수한것으로 널리 알려 져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천연칠감인 옻으로 밥상, 밥 그릇, 화장함, 옷장, 다반을

비롯한 여러가지 생활용품과 공예품을 완성하였는데 기본 은 태천옻칠공예를 본보기로 여겨왔다.

태천옻칠공예의 고유한 기 법에서 특징적인것은 검은색 이 아닌 다른 계렬의 옻칠은 거의 찾아볼수 없으며 투명 옻칠을 하는 경우에도 검은 색바탕우에 하는것이다.

각이한 력사적시기를 거 쳐 발전되여온 태천옻칠공예 품은 조선봉건왕조말기에 다 른 나라들에까지 명성을 뗠 치였다.

태천옻칠굥예는 공화국의



의하여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으로 등록되고 계승발전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족적향취를 더해주고있다. 본사기자

类证智等

◆ 산이 들썩한 끝에 쥐새 끼 한마리라.

란스럽게 떠들어댔지만 결 겨 이르는 말. 국 얻은것이란 조그마한 쥐 을 할듯이 크게 벌려놓았 으나 결과는 보잘것 없거나 '뚱하게 둘러맞추는 행동을 아예 없는것을 두고 비겨 비겨 이르는 말. 이르는 말.

리를 한다.

아먹을 궁리를 한다는 뜻 으로서 당치않은 생각이나 굉장히 큰일을 할듯이 요 주제넘은 행동을 보고 비

◆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

고 상대방을 속이려고 엉

② 제가 저질러놓은 옳지 ♦ 까마귀 꿩 잡아먹을 궁 않은 행동이 폭로될가 두려 워서 그 어떤 다른 수단으 까마귀는 본래 꿩을 잡 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 아먹지 못하는데 꿩을 잡 함을 비겨 이르는 말.

사 화 김삿갓 박 종 철, 그림 채 대 성

어느날 삿갓이 내금강의 만 폭동에 가느라고 허줄한 행 색을 하고 표훈사쪽을 지나 게 되였다.

때는 한창 여름이여서 사 방에 록음이 우거졌는데 나 무그늘아래에 웬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벅적 고아대고 들 있었다.

알고보니 량반들이 둘러앉 아서 한창 글짓기내기를 하 고있었다.

글을 짓는 일이라니 삿갓 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여 가 만히 옆에서 듣고있는데 금 강산을 노래한다는 시들이 모두 허황한 빈소리뿐이고 앞 뒤가 맞지 않아서 하나도 마 음에 드는것이 없었다.

삿갓이 끝내 답답함을 참 지 못하고 슬그머니 나무그 키는 글자가 있으면 두자를 늘에서 나서면서

나는 청산이 좋아 들어 가는데 록수야 너는 어이하여 나

오느냐

라고 큰소리로 읊었다. 한창 열들이 나서 글자랑 에 여념이 없던 량반들이 문 두 그 소리를 듣고 생각해보 니 하도 의미심장한데가 있는 지라 곧 삿갓을 불러세웠다. 그중 구석쪽에 앉아있던 한 량반이 《당신이 시를

지을줄 아는가?》 하고 물

《지을줄은 모르지만 부를 줄은 압니다.》 삿갓이 이렇 게 대답하니 그 량반이 다시 《그럼 어디 불러보라.》라고 하였다.

삿갓이 별로 생각도 없이 《그럼 소나무를 가리키는 글자가 있는가요?》 하고 물 었다.

량반이 있다고 대답하자 삿갓은 그 두자를 나란히 쓰 라고 하였다.

그것을 다 쓰고나자 삿갓 은 다시 잣나무를 가리키는 글자가 있는가고 물었다. 량 반이 있다고 대답하자 삿갓 은 그 두자도 옆에다 나란히 쓰라고 하였다.

이어 삿갓은 바위를 가리 더 쓰라 하고 그옆에다는 돌 아간다는 글자를 한자 덧붙 이라고 하였다.

그런 방법으로 삿갓은 줄 을 바꾸어서 산과 물을 가리 키는 글자, 이곳저곳을 가리 키는 글자를 각각 두자씩 나 란히 쓰게 하고는 기이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가 있으면 하 나 더 붙여놓으라고 하였다.

그 량반이 영문도 모르고 받아쓰다가 여기까지 와서는 그만 화를 벌컥 내며 《여 보, 내가 시를 부르라고 했 지 언제 이런것을 부르라고 했소?》 하고는 붓을 집어던

졌다.

그제서야 삿갓은 빙긋 웃으 며 《잘되였든 안되였든 내 글 잘하는 량반들과 시흥을 한번 즐겨보았으니 오늘 금 강산구경은 재미있게 되는셈 이요.》 하고는 그냥 수림속 으로 사라졌다.

멍하니 앉아있던 량반들이 그제서야 응긋쭝긋 모여앉으 며 삿갓이 불러준 글을 읽어보 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유명한 시가 될줄은 누구도 몰랐다.

소나무 잣나무 바위들이 뒤섞인 사이를 돌아드니 산은 산마다 물은 물마다 곳곳이 기이한것뿐이고나

한번은 삿갓이 금강산에서 시를 제일 잘 짓는다고 하는 한 스님을 찾아갔다.

그 스님은 내금강구역 마 하연이란 암자에서 살고있었 는데 어려서부터 금강산에서 나서자란 사람이라 산에 대 한 애착이 누구보다 깊고 또 한 시를 짓는데서 한다하는 문장가들보다 못지 않은 재 간을 가지고있었다.

삿갓이 먼저 《대사가 시 를 잘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이다. 청컨대 제가 금강산구경을 왔다가 대사와 함께 시구를 겨루는것으로써 한때를 즐길수 있게 하여준 다면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

겠나이다.》라고 하였다. 스님이 그 말을 듣고 가만 히 삿갓의 거동을 살펴보다 가 《내가 시를 잘 짓는다 는것은 필시 헛소문이요. 나 는 이 산속에서 오십여생을 살아오면서도 아직 금강산에 알맞는 글귀 하나 찾아내지 못하였소. 한데 당신은 어떤 글재주를 가졌길래 나한테 그런 청을 거침없이 할수 있 소?》라고 물었다.

삿갓은 다시 《산이 천하명

《대사의 말씀대로 글재주 가 아무리 비상하다한들 어

떻게 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을수 있겠소. 나는 다만 대사가 산을 몹시 애중 한다 하기로 내 또한 금강산 을 보는 감회가 볼수록 깊은 데 그 심정을 누를길 없으니 이 두 마음을 합친다면 혹 시 좋은 시가 나올수도 있 지 않을가 하는것을 바랄뿐 입니다.》 스님은 그 말을 새겨듣고보



도 또한 천하명문이 되지 않 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삿갓의 노는품이 만만치 않은데 은연중 괘씸한 생각 이 든 스님은 《정 소원이라 면 내기에 응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 도 헛소리를 하여 저 청렴하 고 신령스러운 산을 털끝만 큼이라도 욕되게 한다면 당 신의 이발을 빼여버리겠소.》 라고 하였다.

삿갓은 쾌히 웃으며 다음 과 같이 대답하였다.

삿갓이 청하는 내기에 응하 게 되였다.

잠시후 그들은 비로봉 높은 꼭대기에서 시작하여 만폭동 골안을 따라서 흐르는 사선 계 개울가에 마주앉아 글짓 기내기를 시작하였다.

시는 금강산을 많이 아는 스님이 전구를 떼고 삿갓이 대답하는 식으로 후구를 채 웠다.

스님: 이른아침 립석봉에 오르니

삿갓: 저녁에 황천수의 물을 마시니 달이 입술에 걸리더라 스님: 사람의 그림자는 물 속에 잠기였어도

구름은 발아래에 생기고

옷은 하나도 젖지 않았고 삿갓: 꿈속에 청산을 오르고 내렸어도

다리는 하나도 아프지 않네

스님: 산에서 돌이 굴면 천년이 걸려야 땅에 닿을듯 하고

삿갓: 산이 한자만 더 높 으면 손이 하늘에 닿을듯하

여라 스님: 가을구름이 만리에

뻗었으니 흰 고기비늘이 겹쌓인것 같고

삿갓: 천년묵은 고목의 뻗친 가지는 사슴의 뿔이 높이 솟은듯

하구나 스님: 청산을 돈을 주고

샀더니 구름은 공으로 얻고

삿갓: 맑은 물가에 다달 이니 고기는 저절로 모여드누나

스님: 절벽은 비록 위태롭게 솟아있어도

그우에서 꽃이 웃는 경치가 좋고

삿갓: 양춘은 비록 아름 다워도 새는 울며 떠나가니 비감이

생긴다 스님: 물은 절구공이가 되여

절벽을 연방 내려찧고 삿갓: 구름은 옥으로 만든 자가 되여

청산을 재여간다